

쉽다!

계시록이 열린다

나우이즈커밍 NOW IS COMING

김민호 지음



시지저스티비

계시록을 보았는가?

쉽다!

하나님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은 무엇인가?

다니엘서의 작은 뿔은 무엇인가?

지금은 마지막 어느 때 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대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은 무엇인가?

짐승의 일곱 번째 머리는 어느 왕국인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666 짐승의 표가 주는 대환난은 무엇인가?

부활한 로마제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E.C 인가?

종교통합은 이루어지는가?

7년 대환난은 올 것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마지막 대환난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대환난은 누가 일으키는가?

세계단일정부는 세워지는가?

나우이즈커밍
NOW IS COMING



지금은 마지막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징조들이 보이는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눈앞에서 활동하는 것이 보이는가? 대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될 것인가?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지구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계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의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 짐승이 누구길래 주의 재림 전에 온다는 것인가?

마지막 때의 프로세싱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세상은 물질의 부요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거짓 영들의 활동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채 세상일에 분주한 지금 어느새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필자는 1992년 아날로그 시대의 상징인 LP판이 CD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에 서서 드디어 마지막 때로 진입되었구나 하는 불안감에 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아날로그 시대는 끝나고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빠져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이 그렇게 마지막 때의 사건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는 뜻입니다. 1992년 문턱에서 인간의 역사는 성경의 계시록이 예언한 마지막 때, 대환난의 때를 향하여 출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1993년 7월경 성령에 이끌려 계시록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들이 뉴스를 통해 보이는데도 교회와 성도들은 알아채지 못한 채 둔감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 성도들 누구나가 쉽게 읽을 수 있으며, 계시록이 미리 알려주는 마지막 때 환난의 타임라인에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요한이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미리 알려준 것처럼 이 책이 마지막 때에 복된 소리가길 바라고(계1:3)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되는 7년 대환난의 모습이 바로 보이길 소

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만 선포되기를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싶은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한 쪽 성경공부 29”, 통시 성경공부의 마지막 29장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이 책은 주석이 아니므로 계시록의 모든 장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통시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어서 인간의 역사와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해석합니다. 이 책과 함께 계시록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이 열리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 다루지 못한 계시록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독자들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책이 마지막 때의 나팔이 되기를 소망하며 ...

2022.06.30.

김민호 목사

차
례

Contents

1. 마지막 때를 지나는 교회

나는 타임라인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 서머나/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에베소/버가모/두아디라/사데

2. 마지막 때의 징조

나는 징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루살렘 멸망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

3.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속에 담긴 그것

*독수리

*장차 한 왕

4. 투 킹덤_Two Kingdoms

산 돌과 짐승, 두 비밀의 나라

*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 작은 불

* 적그리스도의 나라

5. 적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666 네임 브랜드

*불법한 자 -하나님보다 높은 자

6. 적그리스도와 음녀, 그 시나리오

2000년간의 로맨스, 그 끝은 무엇인가

* 예언적 시나리오

* 지형적 시나리오

* 짐승의 환난 이후

7. 마지막 때를 향한 타임라인

시간의 톱니바퀴가 만들어 내는 마지막 때의 모습들

* 천사와 작은 책

* 두 증인

- *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일곱 번째 나팔
- * 이스라엘의 남은 자
- * 두 짐승

8. 144,000명

유대인이 아니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숫자

- * 시온산에 선 자
- * 동정(童貞)

9. 7년 대환난

마지막 때 끝에 7년 대환난이 있는가

- * 70 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
- * 이스라엘 독립
- * 황금돔
- * 세계정부
- * 7년 평화협정

10. 인자 같은 이의 추수, 휴거인가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휴거의 유일한 정황

- * 인자 같은 이의 추수
- * 두 번째 천사의 추수

11. 재림과 휴거

지상 재림 전.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가

- * 재림의 때, 그 정황
- * 휴거
- * 재림
- * 달혀진 D-day
- * 휴거, 대환난 전 그 가능성의 리뷰
- * 은혜의 때, 환난의 때
- * 혼인 잔치
- * 재림의 전조, 배도
- * 재림의 때를 알리는 무화과나무 잎새들

* 위로

12.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

주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후 재림하시는가

*휴거의 정황이 없는 재림

*둘째 사망, 불못

*1000년 왕국

13. 백 보좌 심판

두 개의 책에 따른 마지막 심판

*행위가 기록된 책

*생명책

*교적부

14.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

이 세상 역사는 사라지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1

마지막 때를 지나는 교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뇌리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3:4)라는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어떤 이의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닫혀 있는 책으로 있고 성도들은 좀처럼 열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계1:1) 이라는 긴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여인의 손거

울에 갇혀 이내 닫아버립니다. 그 손거울을 다시 열어보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 보여주는 일곱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곧 성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먼저 내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둘이 있는데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는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

서머나는 항구도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의 통치 아래서 부요한 교역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 숭배 통치에 순응하는 도시였으며 성도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되는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칭찬하셨습니다.(계2:9) 이 교회는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신 유대인 아닌 유대인들에게 훼방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권면하시고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아시는 주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며 영원한 형벌로서의 사망을 말합니다.(계 20:14)

기둥 같은 믿음의 전사들

빌라델비아는 상업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주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하여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이방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되는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했습니다.(계3:8)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기둥 같은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예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때는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환난의 때, 환난의 시기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계3:1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박차고 일어서야 할 성도들

서며나,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반대로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와 수리아를 잇는 주요 무역로(貿易路) 연변에 위치해서 금융, 면직, 모직 산업 그리고 약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연고로 된 안약기술로 유명했습니다. 그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요했으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물질의 부요함에 취해 영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참담한 교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되는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주께서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권면하셨습니다. 부요함에 취해 있는 칭찬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계3:19)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권면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의 부요함에 안주하고 웅크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계셨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주의 장벽을 헐고 마음의 문을 열어젖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할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주께서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습관화 되는 성도들

고대 에베소는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해서 상업의 중심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이미 교회 시대 이전부터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Artemis, 로마의 Diana)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풍요의 여신 아데미 숭배지였습니다. 많은 유방을 달고 있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온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모형들을 사서 신전에 가져오거나 집에 모셔 섬겼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이 신이 되지 못한다고 아시아 전역을 돌며 설교하자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신전 모형들을 버리게 되어 그것을 만들던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킨 곳입니다.(행19:21-28)

이러한 우상문화 환경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소개되는 예수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과 같이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열심이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습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셨습니다.(계2:5)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단에서 나와야 할 성도들

서부 소아시아의 도시 버가모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로마의 아시아 수도이기도 한 이곳에는 극장, 병원 경기장이 세워졌으며 웅대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이방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버가모의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 여신 아테나, 제우스 신 등의 여러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와 이교 예배의식에 빠져살아가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되는 예수께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일찍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민31:16) 그뿐만 아니라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시고 주께서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주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교회였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한 니콜라당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어떤 성도들은 영적 각성이 없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은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계18:4)

환난에 던져질 수 있는 성도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위치해서 이를 연결해 주는 교통 요지이면

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이주한 유대인들로 인해 상업 도시로 번성했습니다. 이곳은 염료 산업과 금속 세공기술이 발전한 상업과 산업의 도시였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행위가 더 많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주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칭 선지자라 칭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어 종교행위에 포함되는 음행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찌니라” 경고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한편, 사단의 깊은 것을 잘 알지 못하나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는 온전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께 있음에 대하여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온전한 믿음에 선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권고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자칭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져 교회를 타락에 빠뜨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혹에 빠져 바른 교훈에서 떠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흔들어 일깨워야 할 성도들

사데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 시대에 소아시아 도(道)로 편입되었습니다. A.D. 17년 지진으로 파괴되어 티베리아스(Tiberias) 황제가 재건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그곳에는 황제숭배의 처소가 있었으며 직물, 염료, 옷, 보석 산업으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데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일깨지 않으면 주께서 언제 임할는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환기(喚起)시켰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신자들 안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옳은 행실의 몇몇 성도들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몇몇 신실한 성도들은 주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데 교회에 대하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올바른 행실이 없이 살아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옳은 행실의 성도’가 있음을 사데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을 통해 나의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계시록의 사건이 성도님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대의 커튼을 열어보겠습니다.

2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계시(revelation)하셨습니다.(계1:1)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대한 계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먼저 계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한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들은 헤롯이 증축하여 위용을 뽐내는 성전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막13:1)

이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2...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24:2)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가만히 나아와 언제 성전이 파괴되는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3...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24:3)

제자들이 예수께 물은 그들의 관심사는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파괴’였고,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으며 또 하나는 ‘말세의 징조’였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예루살렘 멸망, 말세의 징조, 대환난, 재림, 그리

고 휴거 등에 대하여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세에 먼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며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어야 할 어떤 고난의 시기가 있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마24:13) 이 고난의 시기는 마지막 때에 펼쳐질 삶의 자리이고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 온 땅에 전파될 것이고 세상은 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찜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지 말찌어다
19.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마24:15-28)

제자들은 성전파괴에 대하여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큰 환난, 곧 대환난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대환난과 함께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환난에 대하여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21) 말씀하심으로써 대환난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환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난은 선행하는 징조가 있다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이 대환난은 특정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징조는 다니엘이 예고한 징조였으며 그 징조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었는데 그 징조가 눈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³⁾이라고 말씀하신 대환난의 징조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뉘집니다.

하나는, 로마의 디도(Titus)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와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2:4) 라고 바울이 말한 바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세속적인 통치자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요한계시록이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때의 ‘대환난’을 바로 이해하는데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3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환난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24:21)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휴거’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대환난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난 전에 있는지 대환난

후에 있는지 성도들에게 밝혀 주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마24:31)

그런데 누가는 큰 환난의 징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눅21:20)

로마의 무감각한 무단정치에 불만이 고조된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자들과 충돌하면서 A.D. 66년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장군 케스티우스 갈루스(Cestius Gallus)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회군(回軍)한 후 네로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아나를 유대 총사령관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디도(Titus)는 독수리 깃발을 치켜든 군대를 이끌고 AD 67년 아버지 베스파시아나를 따라 유대인 폭동을 진압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은 동족살상의 주검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마24:28)

성안에는 소요가 일어나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성은 도적들과 광신적인 열심당원들과 살인자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어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성안은 서로 암투를 벌이고 싸웠으며 선량한 동족들은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성안에는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체가 밟혔고 매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유린당한 농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와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 대항했던 봉기 초기에 유대 반란군의 장군으로 있었던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A.D. 37-100년, “유대전쟁사” 저술)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이 계속되는 동안 유월절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스파시아나는 일련의 전과를 올렸고 68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는 네로 황제가 죽자 로마로 가서 황제로 즉위하기 위해 퇴각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란은 그의 아들 디도에게 맡겨졌습니다.

디도는 요세푸스를 특사로 보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안

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면 사죄하고 화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성안의 유대인들에게 저항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감동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성 밖에서 로마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성안에서는 폭도들의 암투와 편싸움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안에 비축되었던 양곡들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로부터 27번의 공격을 받는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며 실패하던 디도의 로마 군대는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 외부에 토성을 쌓고 유대인들의 탈출로를 봉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라고 하신 말씀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사면을 토성을 쌓아 가두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눅19:43) 이렇게 되자 성안에는 기근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근이 오래되자 식량난은 무섭게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안은 기근으로 주리게 되었고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다락방에는 굶어 죽어가는 여인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노인들의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아비가 먹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빼앗아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자기의 아들을 구워 먹는 비참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예고한 모습이었고(레26:29)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도다”라고 탄식한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애4:10) 성안에는 먹을 것이 발견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뚫렸으며 성전은 불태워졌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동안 약탈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어린아이, 노인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동정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은 성안의 골목을 누비면서 잡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살육했습니다. 성 전체가 피에 물들었으며 불에 타는 집들이 죽은 사람들의 피에 꺼질 정도였습니다.4)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전쟁 기간 동안 포로 잡힌 사람의 수가 97,000명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수가 1,10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태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셨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성과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기초석까지 파서 없어버려 성전은 완전

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성전을 가리키며 성전이 어찌 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 지리라”(마24:2, 눅21:5)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한 예루살렘은 A.D. 70년 멸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눅19:41)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43.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눅19:41-44)

예수께서는 이러한 대환란을 피하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찌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찌어다”(눅21:21)

예수께서 예고하신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들어가지 않았고, 로마 장군 케스티우스 갈루스가 회군했을 때 성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다니엘 역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26...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9:26)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은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환란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큰 환란의 징조에 대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눅21:20) 이라고 가르쳐주시심으로써 다니엘이 말한바 “그의 종말(단9:26)” 곧 “예루살렘이 당할 큰 환란”은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홍수에 엄몰된 것처럼 멸망했으며 또한 다니엘이 끝까지 전쟁이 있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함락되자 최후의 960여 명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남쪽,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높이 약 400m 고지 위에 162,000m² 정도 면적에 성곽을 갖춘 천연 요새지 마사다로 도망쳐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마지막에 모두 자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황폐되었습니다. 마사다는 대 헤롯(Herodes)이 유사시 자신의 피난 목적으로 증축했던 왕궁이자 식량창고와 수조, 목욕탕 등을 갖추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끝까지 저항하며 멸망함으로써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환난은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큰 환란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대환난은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또 다른 환란임을 가르쳐줍니다.

4 두 나라 (Two Kingdoms)

다니엘은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족 출신의 소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을 섬기며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았고 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그가 온 땅에 환란을 던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이 땅에 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은 그 꿈을 기억하길 원했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꿈을 알려 주지도 해석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모두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박사(the wise men)들은 죽게 되었고,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은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는 아리옥을 만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일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기한을 주면 왕이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하고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에게 인도하면 꿈과 해석을 왕께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37.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세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뺏을 것이며

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단2:31-45)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큰 광채가 나고 두려움을 주는 신상, 곧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의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된 신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신상을 부서뜨리고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가 간 곳이 없게 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들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큰 신상의 정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뒤이어 메데와 파사(은으로 된 신상의 가슴과 팔), 헬라(놋으로 된 배와 허벅다리), 그리고 로마 제국(철로 된 종아리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발과 발가락)이 이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 나라, 로마는 열국을 가루로 뺏는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철과 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기 때문에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어서 후에는 인종이 합하지 못하고 나뉘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처럼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고 서로마 제국은 아시아에서 넘어온 흉노족의 침입을 받아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받아 10개의 나라로 나뉘어 476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은 오스

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틴 11세 때,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 시대가 끝나고 세상은 각각의 민족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모여 살아가는 열국(列國)의 시대, 열왕(列王)의 시대, 곧 각각의 나라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지구촌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왕이 꾸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자 신상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쓸려가 간 곳이 없게 되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열국을 쳐서 파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골1:13)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심문받을 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18:-35-38)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B.C. 4C 헤롯 대왕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써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산 돌(Living stone)이신 예수 그리스도(벧전2:4)의 십자가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한 나라”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에 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뿔

다니엘은 벨 사살 왕 원년에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異像)을 보았습니다.5)

-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 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단7:3-8)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 뿔이 달린 짐승이 차례로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할 또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넷째 짐승, 곧 열 뿔이 달린 짐승의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철과 진흙으로 된 10 발가락을 가진 큰 신상의 환상은 서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나뉘면서 열국(列國)의 시대로 전환되는 초입에 10 뿔, 곧 10 나라 사이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종교 왕국 ‘작은 뿔’이 돌아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였습니다. 이 신비한 나라는 지극히 작게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꿈속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볼 때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일 것입니다.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두 번째 올라온 잇사이에 세 갈빗대를 물고 있는 그 짐승은 곰 같은데 메대와 파사를 상징하고, 세 번째 올라온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달린 표범 같은데, 그 짐승은 네 개의 나라로 나뉜 헬라를 상징하고, 네 번째 올라온 그 이름 없는 짐승은 이전 제국들과 다른 아주 강한 짐승으로서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여 큰 철니(鐵齒)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올라온 열 뿔을 가진 이 넷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큰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과 열 발가락을 가진 그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보여주는 느부갓네살의 꿈은한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끝나고 열국(列國)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붕괴되고 서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열국(列國)의 시대를 열자 초입에 이전 나라와 성격이 다른 나라, 종교 국가인 “작은 뿔”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적하기 위하여 열 개의 나라 사이에서 돌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종교 왕국, “작은 뿔”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왕국은 세상 임금인 사단과 그의 메신저 짐승에 의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상기해야 할 것은, 짐승은 나라이고 또 그 나라의 왕을 지칭합니다. 마귀의 인격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유1:10), 짐승 같은 마귀가 세상 임금(요12:31,16:11)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뿔 또한 나라를 의미하고 또 왕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뿔을 이야기할 때 나라 또는 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네 짐승의 환상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중요한 두 왕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하나의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리는 제국 시대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새로이 도래하는 열국(列國)의 시대 초입에, 곧 B.C. 4년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사단이 일으킨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4년 두 아들에게, 곧 호노리우스(Flavius Honorius, 384~423)에게 서로마 제국을, 아르카디우스(Flavius Arcadius, 377~408)에게 동로마 제국을 각각 분할해 준 뒤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서로마 제국으로 대 이동한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완전히 장악한 후 10개의 나라로 나뉘면서 열국의 시대로 진입하자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열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의 왕국,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일으켰습니다. 그 열 뿔 사이에서 돌아난 작은 나라, 신비한 나라, 그 나라의 왕 ‘작은 뿔’에 대하여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십시오.

“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못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

하여 보인 것이라

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라..”(단7:19-27)

이 넷째 짐승(로마 제국)의 열 뿔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앵글로 색슨(영국), 프랑크(프랑스), 알레마니(독일), 부르군드(스위스), 롬바르드(이탈리아), 서고트(스페인), 수에비(포르투갈), 동고트(멸망), 반달(멸망), 헤둘리(멸망) 10개의 나라로 나뉘며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새로운 나라, 곧 “작은 뿔(Little horn)”이 돌아나오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 “작은 뿔”은 이전 나라와 다르고, 또 그 왕 역시 이전 왕들과 달랐습니다.(24)

다니엘이 본 그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자의로 고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였으며 또한 종교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작은 뿔”의 환상으로부터 약 700년 후 A.D. 95년 어간(於間)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에게 다시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서는 환상이 임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나뉘면서 열 뿔, 곧 열 나라 가운데서 ‘작은 뿔’, 교황권이 돌아났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서로마 제국의 지상통치권은 로마교회의 감독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권과 결탁하면서 교황권에 걸림돌이 되던 헤둘리, 반달, 동고트 세 뿔을 제거합니다. 동로마 제국의 제노(Zeno) 황제에 의해 헤둘리가 제거되고,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황제에 의해 반달, 동고트족이 제거되었습니다.(단7:24)

이 작은 뿔은 눈 같은 것이 있고 말하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교만한 자로서 스스로를 높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키며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권세 아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년 6개월 동안 붙여지게 됩니다.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짐승이라 불리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로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살후2:3)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사람들에게 경배받으며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살후2:4) 요한은 그가 본 환상을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13:1-3)

요한이 본 환상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네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춘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달린 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이 사자(바벨론), 곰(메데

과사), 표범(헬라)의 시대가 지나고 철니(鐵齒)를 가진 무서운 짐승, 로마 제국이 열 개의 나라로 나뉠 때 그 사이에서 돌아난 ‘작은 뿔’, 곧 교황권을 가진 작은 종교 국가는 이전 세속 제국들과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국가의 왕으로서 “작은 뿔”의 특징은 다니엘이 말한 특징과 같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6)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7)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종교 국가의 왕, 작은 뿔에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세속적 지상통치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계13:7)

요한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열국의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나라, 곧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으나 상처가 회복되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르게 되는 그 “작은 뿔”의 나라를 요한은 유심히 보았습니다.(계3:7)

요한이 본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제국을 의미하는데 일곱 제국 가운데 하나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짐승의 나라가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일곱 번째 머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작은 뿔’처럼 아주 작게 일어서는 나라였고, 그렇게 일어서다가 타격을 받아 몰락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마지막 때에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다스리는 이 나라와 왕은 고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용(계13:2), 곧 마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작은 뿔로 시작하여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이르러 이 나라의 왕, ‘작은 뿔’은 온 세상이 기이히 여기며 따르게 되고 작은 뿔은 그렇게 권세를 얻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며 온 세상은 그를 따르며 그의 나라가 됩니다. 요한은 이 나라와 왕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여덟 번째 왕, ‘작은 뿔’에 대하여 이처럼 증거했습니다.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

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17:8-14)

요한은 이 작은 뿔, 짐승이라 불리는 왕, 마지막 때에 음녀, 곧 세계적인 혼합종교를 등에 업고 등장하여 온 땅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녀는 10장에서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8) 무저갱은 마귀의 처소입니다.(계11:7) 이 짐승의 나라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짐승의 나라는 사단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습니다. 이 짐승의 왕국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앗은 일곱 산과 일곱 왕인데(계17:9)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요한 당시 있다고 했습니다. 산은 제국을 상징합니다. 일곱 머리는 고대 일곱 제국과 그 왕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온 땅을 다스렸고 로마의 황제는 요한을 밧모섬에 유배시킨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망한 다섯 제국은 로마 이전의 제국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로마 이전의 다섯 제국을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 메데, 파사, 바벨론, 앗수르의 다섯 나라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메데와 파사를 하나의 나라로 합쳐 생각하면 애굽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라와 왕은 요한 당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의 왕(11)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의 왕은 이전에 있었던 자로서 무저갱에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다시 올라와 세상 권세를 움켜잡니다. 이 마귀의 메신저인 마지막 때의 통치자 여덟 번째 왕을 “여덟 번째 머리”라고 말하지 않고 “여덟 번째 왕”이라고 말하고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고 이미 세워진 일곱 왕국 중 하나를 손에 넣어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덟 번째 왕,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일곱 머리 가운데 하나인 “일곱 번째 나라”의 왕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다섯은 이미 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로마 제국 이전 다섯 제국에는 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라고 말함으로써 그 나라가 로마 제국임을 가르쳐주었지만 로마 역시 멸망하였으므로 로마는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왕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망한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나라로서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으나 그 상처가 낫게 되는, 곧 국운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 다시 기적적으로 일어서는 나라입니다.(계13:3) 이 나라가 작은 뿔이고 적그리스도인 여덟 번째 왕은 일곱 번째 나라, 작은 뿔에 속한 자이고 또 작은 뿔 자신입니다. 이 일곱 번째 나라는 이전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이 왕국과 왕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11)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본 열 뿔 사이에서 돌아난 종교 왕국, 일곱 번째 나라, “작은 뿔”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데 그 나라의 왕 가운데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권세를 잡고 온 땅을 다스리는 여덟 번째 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덟 번째 왕은 망한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곱 번째 나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 왕국 위에 앉아 온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으로서 여덟 번째 왕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통치하는 왕국은 일곱 번째의 왕국을 이어받지만 10명의 왕 같은 통치자와 함께 그들에게 권세를 넘겨받아 온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 질서를 가지고 새롭게 완성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한에게 고대 제국 “다섯은 망하였고”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헬라, 메데, 파사, 바벨론, 앗수르는 작은 뿔, 여덟 번째 왕 적그리스도가 속할 수 없고, “하나는 있고” 라고 말한 로마 제국도 멸망하였으므로 그 왕국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 왕이 이전 왕들과 다른 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로마 제국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단7:24) 이 여덟 번째 왕은 종교적인 인물로서 “일곱 중에 속한 자”(17)이기 때문에 멸망한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 잠시 동안 머무르는 나라(계17:10), 또 그렇게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나는 일곱 번째 나라, 곧 부활한 로마라고 일컫는(계13:3), 작은 뿔, 로마 가톨릭 바티칸 시국의 교황입니다.

요한이 본 여덟 번째 왕의 특징은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았고, 마흔 두 달, 곧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자로서(계13:5),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통치하는 자입니다.(계13:5-7)

또 다니엘의 작은 뿔, 짐승의 특징 역시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자로서.(단7:8)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변개하고,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는 자입니다.(단7:20-25) 다니엘과 요한은 그가 3년 6개월 동안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계13:5)(단 12:7)

이 “작은 뿔”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그는 악마적인 왕으로서 짐승(the Beast)이라 불리는 자이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며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요1:29,벧전1:19,살후2:3)

이 짐승은 다니엘이 말한 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단7:24)”라고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다스립니다. 이 짐승의 특징에 부합하는 왕과 나라는 지구촌에서 교황권이 유일합니다. 바티칸 시티의 교황권은, 작은 뿔로서 짐승과 그의 나라의 특징에 잘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의 열 뿔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철과 진흙이 섞인 열 발가락은 서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나뉘면서 열국의 시대로 들어서는 것을 상징하지만, 요한이 본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에게 달린 ‘열 뿔’은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 거느리는 ‘열 명의 왕’을 상징합니다.(계17:12) 이처럼 작은 뿔,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10명의 왕 같은 통치자들을 거느리며 이들이 자신에게 넘겨주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깨어지고 멸망하게 되고 마침내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계19:20)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므로 짐승의 나라를 깨뜨리고 짐승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짐승의 환란을 이깁니다.(계17:14)

5

적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덟 번째 왕, 거대한 혼합종교 왕국, 음녀를 등에 업고 마지막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수 666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비밀스러워 좀처럼 알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이 짐승이 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는 세상에 없는데 그가 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견주어 참람한 말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단7:8) 이 작은 뿔의 성격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단 7:24-26)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작은 뿔은 종교 왕국을 세우고 왕권을 이어가며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자의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 작은 뿔, 짐승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살후2:3,계 13:5-6) 그 마지막 왕에 대하여 다니엘이 받은 환상입니다.

“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휼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궤를 베풀어 제 손으로 궤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26. 이미 말한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단8:23-26)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 권세는 자기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계12:3,9) 그의 모습은 엄장하고 궤혈에 능하며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그 스스로 꾀를 내어 뜻을 이루며 마음으로 스스로 큰체하고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게 되는데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깨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마귀의 화신으로서 평화한 때에 많은 사람들을 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단8:23-25) 이 자는 얼굴이 엄장하고 술수에 능란한 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보이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는 성도를 멸하고 세계가 자신을 따를만한 꾀를 베풀어 큰 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아들, 세상의 왕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산산이 깨어져 버립니다.(단2:34-35) 이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살후2:8)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한 때, 두 때, 반 때, 곧 마흔 두 달, 삼년 반 동안 권세를 받게 되는 온 세상의 마지막 통치자인 짐승은 하나님의 법과 때를 자의적으로 변개시키고 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릅니다.

다니엘과 요한 그리고 바울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면 작은 뿔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이며 또 “때와 법을 변개” 하는 자(단7:25)이고 또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아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계13:5-6)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보다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일컫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2:4)

우리는 역사에서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 부르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으며,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나는 그리스도보다 자비롭다”라고 말했으며, 교황 보니페이스는 “로마 교황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교황에 대하여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티칸 공식 서적 Feraris 가 쓴 Prompta Bibliotheca 6권 25-29쪽에서는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참으로 참람한 말인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요14:6) 자비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고후1:3) 모든 사람의 심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요5:22,27, 행17:31)

이렇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17:14)

요한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짐승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대적과 핍박은 중세에 성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세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재판으로 박해했습니다. 종교재판은 고문이 허용되었고 재판소 안에는 고문 도구들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불에 달구운 쇠꼬챙이로 눈을 지지거나, 줄로 매달거나, 쇠꼬챙이가 박힌 철갑치녀로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손발을 잡아당기는 평판고문대로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기둥에 묶어 화형시키거나, 손과 발 사지를 끈으로 말에 묶어 찢어 죽이거나, 목매어 나무에 매달거나, 쇠꼬챙이가 박힌 널판 위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거나, 벌거벗겨 나무에 매달아 말려 죽이거나, 칼로 목을 잘라 죽이거나,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종교재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교황권의 박해는 15c 초부터 발단된 마녀사냥이 사회적으로 번지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습니

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계 17:6) 라고 묘사된 것처럼 여자인 로마 가톨릭교회와 교황권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보여준 요한의 계시는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핍박은 18C에 와서 계몽주의 태동으로 마녀재판이 사라지면서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종교,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권은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권세를 얻어 한 번 더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짐승의 표 666 대환난으로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작은 빨’ 교황권이 종교 왕국으로 일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여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6

적그리스도와 음녀, 그 시나리오

타임라인의 마지막 때에 공중을 날아가는 세 천사가 땅 위의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예고한 것을 봅시다.(계14:6-11) 그 예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종교 창녀, ‘음녀의 도성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666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는 “음녀”, “바벨론”이라 불리우는 자신의 종교 왕국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음녀의 종교 체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며 세상을 영적인 음행에 빠뜨리는 종교의 어미로서 큰 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으로 치장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데 손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이 들려있습니다. 이 여자의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비밀(mystery)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종교는 온 세상의 종교들을 자신의 혼합종교 체제 아래 통합시키고 그들의 어미가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적이며 이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계17:4,18)

이 음녀의 종교는 금과 보석, 진주로 화려하게 꾸미고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지만 정작 그녀는 거짓 종교이며

또한 혼합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종교 창녀요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음녀의 종교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녀의 종교 체제가 바벨론의 역사와 우상 숭배의 문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론'은 B.C. 19C 중반부터 B.C. 6C 초까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바벨론'을 수도로 하여 발흥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땅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9:1)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창11:4)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시날 평지(창11:2)"는, 세상의 첫 영걸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시날 땅"(창10:10), 헬과 마르둑 신을 섬기던 "바벨론 제국의 땅"(단1:2), 바벨론을 다스린 마지막 '갈대아 왕조'의 이름을 딴 "갈대아 인의 땅"(렘24:5), 또는 "갈대아 땅"(겔12:13)으로 칭하던 땅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온갖 가증한 신들을 창조하였고 그 땅은 그들이 만든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러워진 땅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배도의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의하여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창10:10) 니므롯의 나라는 종교와 관련하여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Semiramis)에 의해 신비적 밀교가 창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시날 땅, 곧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남부 곧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B.C. 3000년경에 최고의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온갖 신들을 창조해내었고 가증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메르 문명은 썬족의 사르곤 1세가 수메르 전역을 정복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아카드 시대(B.C. 2360~2180)를 열었을 때 아카드 문화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 '수메르 아카드 문화'가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흥한 바벨론 종교문화입니다.

"바벨"은 혼잡을 뜻합니다.(창11:9) 세상 마지막 때에 음녀의 종교를 바벨론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음녀가 가증한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 혼합종교의 형태로 하나님께 배교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의 종교는 여자와 관련된 종교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이때에 이 음녀의 종교, 로마 가톨릭교회가 세계의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종교들을 통합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마지막 왕,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이 음녀를 등에 업고 세상의 권세를 손에 넣습니다.

- "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반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7.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17:1-14)

요한은 이 음녀를 등에 업고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일곱 머리와 열뿔이 달린 짐승의 나라와 왕을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왕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로서 물에 앉아(주-물은 온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고 또한 지리적으로 지중해를 의미,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위치한 바티칸 시티는 지리적으로 지중해 위에 앉아 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또 10명의 분권적 왕들을 거느리며(계17:12-13)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중 통치체제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숫자

가 666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음녀가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것(계 17:6)을 보고 요한은 놀랐습니다.7) 이처럼 마지막 때에 세상을 지배하는 음녀의 종교는 중세에 성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또 한 번 성도들을 핍박하고 큰 환난에 던질 것입니다. 이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덟 번째 왕으로 불리는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계17:8)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와 세계정부의 통치권을 손에 넣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 마지막 때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경이롭게 여기며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가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예언적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예언적 시나리오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마지막 때 세상의 권세를 얻어 온 땅을 다스리기까지 그가 걸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여섯 번째 머리, 곧 여섯 번째의 나라 로마 제국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380년에 이르러서 기독교는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전토를 다스렸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395년 죽은 후 로마는 그의 아들 호노리우스와 아르카디우스에 의해 동서로 나뉘어 다스려지게 되었고 서로마 제국은 마지막 황제 어린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에게 게르만인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의 반란으로 인해 퇴위 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서로마 제국은 정치적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에 크게 영향력을 가진 교회의 감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투르

크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유지해 갔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교회 감독이 교황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의 리더십은 세속적 영역까지 확대되었고 교황권은 확대되어 갔습니다. 교황권은 590년 교황 그레고리 1세(Gregory I) 때 확립되었습니다.

교황은 세속적 지상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크 왕 피핀은 자신의 왕위를 교황 자카리아(Papa Zaccaria)로부터 승인받았는데 다음 교황인 스테파노 2세가 이탈리아 북부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롬바르드 왕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피핀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프랑크 왕국 피핀이 754년 이탈리아 원정에 나서 라벤나를 평정하고 그 땅을 교황에게 헌납하였습니다. 이 ‘피핀의 기증’으로 인하여 교황은 세속적 통치영역인 교황령(敎皇領)을 갖게 되었고 교황의 권세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황제의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통치자들은 서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잇는 황제가 되기를 원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800년 12월 25일,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인의 왕 카롤루스 1세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교황이 왕에게 세속 통치권을 부여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신성로마 제국의 출발로 바라봅니다. 이 사건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라보는데 왜냐하면 종교적 권세가 세속적 권세를 넘어서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종교적 권세인 교황권과 세속적 왕권이 대립과 협력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독일의 왕이었고 1056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하인리히 4세는 1073년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심각하게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성직을 임명하는 서임권이었습니다. 10세기 후반 클뤼니 수도원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개혁운동으로 교회는 성직매매가 금지되고 사제들은 독신생활과 청빈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 임명권을 세속 군주로부터 찾아오려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인리히 4세가 자신의 궁정 신부를 대주교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 임명권을 교회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인리히 4세는 그레고리우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마침내 그레고리우스는 하인리히 4세와 그를 따르는 주교들을 파문했습니다.

당시의 파문은 왕에게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문은 교회로부터 끊

어지는 자로서 국가와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진 자로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게 되면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되고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하인리히는 그레고리우스의 파문에 대항하였지만, 독일 귀족들이 등을 돌리자 궁지에 몰렸고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77년 1월 25일 찾아가서 수도사들이 입는 거친 옷을 입고 눈 위에서 맨발로 3일간 용서를 빌었습니다.

파문이 취소되자 하인리히 4세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독일 내 권력을 장악하고 카노사 성을 공략하여 무력화시키고 로마로 진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탈리아 남부를 다스리는 공작 로베르트 기스카르(Robert Guiscard)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지만, 로마시민들에게도 배척되어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로 피신한 후 다음 해 사망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교황파와 황제파가 형성되었고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황권은 계속 확장되었고 권좌에 오른 교황 이노센트 3세(재위:1198.1.8.~1216.7.16.) 때에는 그 절정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노센트 3세는 전무후무한 교황으로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선언하고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황을 태양으로, 왕을 달로 정하셨다고 주장하고 왕의 권세를 교황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였습니다.

주교나 사제들에게 높은 도덕적 자질을 요구했으며, 독신을 강제하고, 어떤 평신도 영주나 군주도 교회의 일에 간섭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가톨릭교회를 쇄신하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세속 왕들로부터 교회의 권리와 빼앗긴 토지를 되찾아 왔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들에게도 지배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이노센트 3세에서 이르러 교황권은 절정에 다다랐으나 이후 교황권은 보니파스 8세에 이르러 철퇴를 맞았습니다.

교황은 지상권의 확대를 위해 왕권과 충돌했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은 교황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의 지상권 확대를 위한 투쟁이 왕권과 충돌하자 신성로마 제국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1301년 “미의 왕 필립”이라 불리는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교황 보니파스 8세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보니파스는 1302년 우남상탐(Unam Sanctum) 칙서를 발표하고 세속 권력을 교회의 권위에 종속시키려

했습니다. 두 번째 교서 우남상탐에 보니파스 8세는 세속 권세는 영적 권세에 종속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필립 4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필립을 파문하려 하자 필립은 아나니 성에서 휴가를 보내던 교황을 습격하게 하여 보니파스를 생포, 납치하고 난폭하게 구타했습니다. 심한 욕설과 함께 뺨까지 맞은 86세의 교황은 당나귀에 거꾸로 앉혀 온 동네로 끌려다니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아나니 폭행사건”이후 분을 삭이지 못하던 교황은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계자 베네딕트 9세도 죽어 보니파스 8세의 후계자, 프랑스인 클레멘트 5세가 교황이 되었는데 그는 보니파스 8세가 필립 4세를 출교 명령한 것을 무효 선언하고 우남상탐을 수정하고 필립4세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속 왕권 아래 들어가 버린 교황청은 1309년~1377년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져 포로 상태로 약 70년간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바벨론 포로”, 또는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왕권과 다투며 지상에 교황령을 획득한 교황권은 다니엘이 본 작은 뿔이 분명합니다. 이 작은 뿔은 지상권을 얻어 권세를 확대해 오다가 보니파스 8세 때 필립 4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죽은 것같이 되었습니다. 754년 프랑크 왕국 피핀으로부터 이탈리아 라벤나를 기증받아 지상권을 갖게 된 교황이 통치하는 도시국가 교황국은 1870년 이탈리아 왕국에 의해 멸망, 합병될 때까지 약 1,116년간 존재했습니다.

교황과 교황국은 이전 나라와 다른 왕국입니다.(단7:24) 그러나 요한이 본 그 왕국은 로마 제국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부활한 로마 제국, 여덟 번째 왕, 적 그리스도가 장차 다스리게 될 짐승의 “일곱 번째 머리” 나라(계13:3,17:11)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10개로 나뉘어 멸망하면서 신성로마 제국으로 이어진 로마 제국은 왕과 교황의 이중 구조를 가진 짐승의 “여섯 번째 머리”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왕과 교황의 갈등으로 서로 다투고 협력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로마 제국은 신비한 형태로, 즉 교황권, 교황국의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교황국은 1870년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를 점령함으로써 교황령을 완전히 상실하고 교황국은 이후 교황령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929년 2월 11일 라테란조약에 의해 이탈리아 왕국과 교회의 대립과 갈등은 종식되고 교황청은 국제법상의 주권을 얻어 바티칸 언덕 위에 0.44 km²의 작은 영토의 교황령을

회복함으로써 작은 도시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몰락한 교황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씀하신 계시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때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티칸 시티의 교황국의 특징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찌어다
 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 "(계13:1-10)

요한이 받은 계시, 곧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달린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계13:14)의 계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 황제와 교황의 권력 다툼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권이 몰락하고 다시 회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이 해석하는 대로 마지막 때의 세상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의 짐승의 머리는 나라와 왕이므로 나라와 왕의 몰락이 있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몰락과 회생이 없이는 개인의 왕, 통치자 머리의 총상만으로는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설

령 그러한 머리의 총상을 입은 마지막 때의 통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몰락과 기적적인 회생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단7:1-12)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말을 하고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고(단7:24-25) 때와 법을 변경하는 종교적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런 인물은 교황 외에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요한이 본 이 짐승은 자신을 나타내는 666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계13:18)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교황이 대관식 때 쓰는 3중 금관에 쓰여진 교황의 공식 명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VICARIUS FILII DEI)”의 문자 값이 짐승의 수 666입니다.8)

짐승을 교황으로 보는 견해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Luther Martin) 그리고 칼뱅(John Calvin), 위클리프(John Wycliff), 멜랑히톤(Philipp Melanchthon), 후스(John Huss) 등등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짐승’을 교황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온 땅을 통치하는 짐승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적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음녀의 종교 왕국을 등에 업고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를 받은 10명의 분권적 왕과 함께 그들로부터 권세를 넘겨받아 세계정부를 손에 넣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될 때는 세상의 권력 구도는 온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는 10명의 왕 같은 통치자가 나오게 되고 이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할 세계정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국제질서에서는 UN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UN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합된 정부가 될 경우, UN의 최고의 권좌에 바티칸 시국의 교황이 오르게 되고 그는 온 세상을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10명의 왕과 같은 권세자를 거느리며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10명의 왕을 거느리며 온 땅을 다스리는 방식이 어떻게 성취될지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온 세상의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며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살후2:4)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륵이니라"(계13:11-18)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두 번째 짐승은 칼에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바다에서 올라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의 권세를 행사하며 그 짐승 앞에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계 패권 국가의 통치자인 거짓 선지자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는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며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환난에 던집니다. 이것이 666 표 짐승의 대환난입니다.

짐승이 곧 나라이고 그 왕으로서 대통령임을 이미 배웠습니다. 미국과 그 대통령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미국과 그 통치권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티칸 시국의 교황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교황 숭배를 위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두 번째 짐승으로서 성도들을 환난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바티칸 도성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계17:18) 이 두 번째 짐승이 국가이고 그 왕인데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미국의

통치자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해석상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갈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10명의 제왕적 통치자들은 온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종교들의 어미가 되어 거짓 교리로 온 세상을 젖 먹이던 자신의 혼합종교 왕국, 종교 창녀 바벨론을 미워하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종교를 황폐화시키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에 태워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계 17:16) 이 아이러니컬한 사건 통해서 음행으로 온 세상을 더럽힌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 네가 본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18. 또 네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계17:15-18)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음녀의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큰 성 바벨론(계18:2)이 심판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기 중에 쏟아 붓자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雷聲)이 있고 일찍이 이 땅에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 바벨론, 곧 온 땅의 종교들을 거느리며 배교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갔던 음녀의 큰 도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계16:19) 이 도성은 불에 살라지고(계18:8) 일 시간에 망하게 됩니다.(계18:17) 온 세상 위에 앉아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왔던, 땅 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적인 교리로 젖먹이던 큰 음녀, 음란한 종교, 땅의 왕들을 다스리던 큰 도성, 혼합종교 왕국, 종교통합 왕국, 곧 바벨론이 하나님께 맹렬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음녀의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 "1...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계19:1b-2)
- "3... 할렐루야 "(계19:3)

지형적 시나리오

지형적 시나리오는 일찍부터 알려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제의 해석이였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이 바다, 곧 지중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짐승, 곧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과 그 나라의 왕, 곧 적그리스도를 유럽연합(EU)과 그 대통령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의 환상이 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나뉘면서 온 세상은 각자의 민족들이 자신의 국가를 형성하며 함께 모여 사는 국제 사회로 진행할 것을 보여주었듯이 옛 서로마 제국이 앵글로 색슨(영국), 프랑크(프랑스), 알레마니(독일), 부르군드(스위스), 롬바르드(이탈리아), 서고트(스페인), 수에비(포르투갈) 국가들로 나뉘면서 로마 제국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27개국이 가입한 유럽연합(EU)은 로마 제국의 부활로 비쳐지고 있어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지형적 시나리오입니다.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을 보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가 합병되어 1967.7.1. '유럽공동체(EC)'가 설립되었고 EC 회원국이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조약을 맺음으로써 유럽연합의 기초를 닦았으며 1993년 11월 1일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94년 1월 유럽

의 정치 경제를 통합하는 유럽연합(EU)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을 뜻하는 ‘브리튼,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 exit’의 합성어)가 발효되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습니다. 회원국은 27개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을 유럽 연합과 그 대통령(현 유럽연합정상회의 의장 _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으로 해석하는 이 지형적 시나리오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이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 온 땅을 다스리는 짐승, 곧 EU 대통령 가운데 한 통치자가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어떤 이는 이를 총상으로 이해/계13:3)를 입고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세상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그를 따르게 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EU 대통령이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여 온 세상을 배교적으로 다스리는 음녀의 종교, 곧 세계통합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EU 대통령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일시 동안 권세를 받은 왕과 같은 10명의 통치자로부터 권세를 넘겨받아 온 땅을 통치합니다.(계 17:12-13) 그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시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면, 미국과 그 나라의 대통령은 적그리스도인 EU 대통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온 세상을 통제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총상으로 죽게 되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EU 대통령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며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인 EU 대통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계13:11)

여기서 적그리스도인 EU 대통령이 머리에 총상을 입어 기적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는 말씀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미국 대통령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권세를 받아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EU 대통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 없이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밋이든 다 죽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EU 대통령이 성도들에게 던지는 큰 환난은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리던 EU 대통령과 열 명의 왕은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이용한, 땅의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한 혼합종교인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고 배신하여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계17:16)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EU 대통령은 그렇게 높아지고 세상 권력을 모두 얻은 후에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합니다. EU 대통령은 땅의 왕(대통령)들과 군대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다가 깨어져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계17:12-14,19:19-20)

이처럼 최후를 맞이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EU 대통령으로 해석하는 지형적 시나리오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몇 가지 짐승의 특징을 만족시키지 못해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첫째, 다니엘이 예언한 짐승, 곧 나라와 그 왕은 작은 뿔로서 종교적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EU와 그 대통령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종교는 로마 가톨릭교회밖에 현실적으로 없는데 종교적 리더쉽도 없는 EU 대통령이 로마 가톨릭교회를 등에 업고 땅 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온 땅을 통치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EU 대통령이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경배를 강요한다는 해석 또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통치자가 종교적 권세를 얻고 성전에 앉아 자신을 높여 하나님이라 경배받으려 하는 것은 현대 정치 패러다임으로 볼 때 생뚱맞은 일입니다.

둘째,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계13:3) 라는 성경 말씀을 총상으로 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난 EU 대통령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반쪽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머리”는 각각의 나라이고 왕(계17:9-10)이기 때문에 짐승 머리의 치명적 상처는 한 통치자 개인의 총상 하나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왕의 동반 몰락과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EU와 그 대통령은 치명적으로 함께 몰락하는 역사와 기적적인 회생의 역사가 없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이 “불법의 비밀(mystery)”(살후2:7)이 이미 활동했다고 선언했으므로(살후2:7) 그 불법의 비밀은 사단의 능력과 권세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cf. 비밀, **μυστήριον**.미스테리온, 계17:5에서도 사용)의 권세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 곧 “불법의 사람”(살후2:3), “멸망

의 아들"을 마지막 때의 EU 대통령과 동일시하려고 하지만 EU와 그 대통령은 약 2000년 이상 사단의 활동에 의해 세워진 그의 나라와 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 지형적 적그리스도론은 다니엘서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전후 맥락이 잘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지형적 시나리오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반종교개혁 신학자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사제인 리베라(Francisco Ribera)에 의해 창안되었습니다. 이 지형적 시나리오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주의 해석으로서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인 것을 숨기기 위해 시도된 해석입니다. 리베라가 교황국과 교황권의 성장 과정에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한 적그리스도 교황의 활동을 볼 수 없게 하려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갑자기 등장하여 하나님 흥내를 내며 3년 6개월 동안 대환난을 일으키는 세상 통치자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왜곡된 시나리오는 일찍부터 그렇게 퍼졌고 리베라에 의해 창안된 미래주의는 개신교 내에서도 성공회 출신 아일랜드 성직자 John Nelson Darby(1800~1882)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로 거듭나면서 19C에 이르러 유럽연합(EU)의 대통령이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7

마지막 때를 향한 타임라인

계시록의 사건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매칭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해석상 난해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미 성취된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닫혀진 계시 외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건들을 타임라인을 따라 살펴보고 또 다가올 사건들도 타임라인을 따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안팎으로 쓰여진, 일곱 인(印)으로 봉해진 그 책의 인(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는 종말의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계6:1-8:1) 그렇게 이 땅에 환난이 시작되고 일곱 인의 환난의 때가 지나가면 일곱 나팔의 환난의 때가 이어집니다. 일곱 나팔이 차례로 울려날 때마다 이 땅에는 새로운 환난이 임하게 되고 이 환난들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쏟아져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계16:2-21)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이 떼어지고, 천사의 나팔이 울려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이 땅은 재앙의 수위가 높아지고 마침내 666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계6:1) 그는 화살이 없는 활을 들고 나타나는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그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등장합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되를, 보리 석 되를 살 수밖에 없는 기근이 따라옵니다.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탄 자, 곧 사망이라 이름하는 자가 등장하여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환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과 다른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계6:17) 그리고 그 모습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자연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갈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선과실 같이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주자 모든 사람이 굴속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이 진노의 날에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음을 탄식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계6:12-7:3) 이렇게 인 맞은 자의 수는 12지파 각각 12,000명씩 144,000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4,000명의 주의 종들이 인침을 받아 보호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환란을 이기고 나아오는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계7:9,14)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든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7:10)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던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계7:12)

이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계7:13)

요한은 말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계7:14a)

그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7:14b)

여섯 번째 인의 환난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 받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의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계 7:9) 하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 환란에서 순교한 믿음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길 수 있도록 허락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므로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보호됩니다. (계17:10)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계17:17)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나온 후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모습이 더이상 타임라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 번의 화(禍)가 이 땅에 내림으로써 마지막 때의 대환난은 끝이 납니다. 이 화(禍)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점에 다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마지막 일곱 번째 인(印)이 떼어지자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함으로써 이 땅은 이전보다 더 큰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계8:2,7-9:21,15) 첫 번째 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고 땅과 수목, 푸른 풀들의 1/3이 타버리고(계8:7),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1/3이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의 1/3이 죽고 바다의 배 1/3이 깨어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1/3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되어 여러 사람이 죽게 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1/3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의 1/3이 비침이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사단)가 떨어지고 그는 그가 받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거하는 처소, 사단의 처소 그리고 마지막 때의 통치자 짐승, 적그리스도의 거처인데 그곳은 천년왕국 기간에 마귀가 천 년 동안 갇혀있는 곳입니다. (계20:1~3, 계9:11,계17:8,눅8:31,)

무저갱을 열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 사이로 무저갱의 사

자들,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와 공기는 무저갱의 연기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올라온 황충들에게 땅의 푸른 것, 수목들은 해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황충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印)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칩니다. 황충들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다섯 달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쏘 때의 괴롭게 함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지만 죽음은 그들을 피해갑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齒)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홍갑 같은 홍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장에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를 갖습니다.

이 황충들은 아바돈(히브리어), 아볼루온(헬라어)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임금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화(禍)가 지나갑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두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계19:13)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연월일시에 사람들의 1/3을 죽이기로 작정된 2억의 마병대가 예비됩니다. 군대의 전쟁으로 사람의 1/3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1/3을 죽이기로 예정된 전쟁의 모습이 현대 탱크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은데 그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의 힘이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데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 해치는 모습을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계9:17)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사람의 1/3이 죽임을 당합니다.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작은 책

여섯 번째 나팔의 환상과 일곱 번째 나팔의 환상 사이에서 요한은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의 손에 펴 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같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곱 우레가 발한 계시의 말씀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우레의 계시는 기록되지 못하고 닫혀진 계시로 인봉되었습니다. 그 대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계 10:6-7)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이 천사의 예고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사건, 곧 하나님의 비밀이 실현된다는 예고였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그 작은 책을 천사에게 달라고 하자 천사는 그 작은 책을 “갹다 먹어 버리라” 말했습니다. 요한이 그 책을 먹으니 천사의 말처럼 입에서는 꿀처럼 달으나 뱃속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계10:11) 말했습니다.

이 작은 책은 요한이 먹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이단의 한 분파인 신천지 이만희라는 교주가 이 “작은 책”을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음에도 그런 말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닫혀진 계시인 것처럼 요한이 먹어 사라져버린 ‘작은 책’ 또한 닫혀진 계시입니다. 이단들은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늘로부터 신령한 그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늘로서 그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

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증인

요한이 천사의 작은 책을 먹어 버리자 이번에는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흔 두 달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존 왈부드(John F. Walwood)는 7년 대환난 중 유대인들의 제사가 회복되고 난 후 후삼년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성전 희생 제사를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성전의 황폐로부터 회복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42달, 3년 6개월의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성취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천사는 두 증인이 삼 년 반,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증인이 활동하는 예루살렘 성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상태 놓여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적인 사람들과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계11:8) 이러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두 증인은 선지자로서 사역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대변되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소멸하고,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삼 년 육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로 대변됩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모두 마치게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죽입니다.(계11:7)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올라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계17:8) 그렇다면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

의 통치기간에 사역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이고 시체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성 밖 길에 놓고(히 13:12)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할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나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발로 서자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두 증인의 모습을 원수들도 구경하게 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예루살렘 성 십 분의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 명이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화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일곱 번째 나팔

이 땅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으로 다가섭니다. 그 시간에 다다르기 전에 천사는 경고의 나팔을 불니다.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긴박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렸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울렸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주요한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바다와 땅을 밟고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외치던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계10:7)

일곱 번째의 나팔이 울려 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의 환난과 나팔의 환난이 모두 지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던 자들에게 부여될 대접 재앙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역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1:26-27)

성경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골1:27, 2:2/the mystery of God)이고 또 하나는 불법의 비밀(살후2:7/the mystery of iniquity)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으로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골1:26-27)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선포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단2:44) 다니엘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44. 이 열왕(列王)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단2:44)

열왕(列王)과 열국(列國)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열왕(列王)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열왕(列王)의 때, 또는 열국(列國)의 때는 모든 민족들이 각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모여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는데 열국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나뉘면서 시작되어 우리가 사는 현시대에 와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개회식에서 선수 입장을 보면 각 나라의 선수들이 자신의 국기를 들고 자신의 민속 의상을 입고 차례대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국의 시대는 나라를 잃고 2600년 이상 디아스포라로서 열방에 흩어져 살다가 팔레스타인을 되찾아 독립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난 팔레스

타인 사람들도 자국의 이름으로 모두 국제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에 가입하고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각국 국가 올림픽 위원회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승인을 얻는데 지금은 206개의 국가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52년, 팔레스타인은 1995년에 가입했습니다. 이처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 있으므로 열국의 형성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요한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 열국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은 여러 설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B.C. 4년 헤롯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됩니다.

열왕(列王)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계시된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에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처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렸습니다.

“15...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계11:15)

요한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의 음성이 발하자 이십사 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계11:17)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17.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계11:17-18)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때일까요? 이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

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몰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후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마지막 나라, 마지막 왕,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의 등장은 불법의 주체인 사단, 마귀에 의해 수행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흉내 내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는 자신의 비밀,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온 세상을 통치하며 그를 통해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요한의 계시는, 사단이 온 세상의 권세를 얻어 이 땅에 환란을 던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러한 환상과 계시의 파노라마는 고대 제국 시대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타임라인을 따라 보여줍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계시록 12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때부터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 마지막 때 끝자락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온 세상의 권세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환란에 던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환란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계11:15)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자 24장로들이 “...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계11:18)라고 말했습니

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다시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밭아래 달을 밟고 그 머리에는 열두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어 요한이 하늘의 큰 붉은 용, 사단을 보았는데 꼬리로 하늘의 별, 곧 사단의 사자들의 1/3을 끌어다가 이 땅에 던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 양육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어 하늘에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곧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큰 용 사단은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겨납니다.(계12:19)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곧 3년 6개월 동안 양육 받게 됩니다.(계12:14)

뱀으로 묘사된 마귀는 이스라엘을 해치기 위하여 물을 강같이 토해내 떠내려 가게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자 용, 마귀는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싸움을 준비합니다.(계12:17)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때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결전의 의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짐승의 환난’의 때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분명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므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계15:3)를 부르는 성도들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계 15:2)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신

실한 백성들을 남겨 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닉 주(Messianic Jew)입니다. 메시아닉 유대교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히브리 기독교 운동에서 생겨났는데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운동이 1973년 보수적인 침례교 목사 마틴 모이쉬 로젠(Martin Moishe Rosen)목사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유대인 조직으로 두드러지게 부상했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며 유대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학은 복음주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약, 토라와 선지서가 신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연구하여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유대인으로서의 예수(예슈아)를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믿고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로 분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믿는 이들은 유대교의 관습과 절기들을 지키고 스스로 크리스천으로 불리기보다 유대인(yehudim.예후딤)으로 불리고 싶어 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방인들과 다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교의 한 종파로 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메시아닉 유대교를 기독교의 한 분파로 봅니다. 이들은 미국 이스라엘 등 2012년 기준으로 약 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이시 크리스천(Jewish Christian)입니다.⁹⁾ 초대교회 때 예돔 출신으로서 유대를 다스릴 명분에 약점을 가진 헤롯 대왕은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제2성전을 B.C. 20년부터 헬레니즘 로마 양식으로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고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성전은 A.D. 60년에 그렇게 마무리되었는데 1세기 제2성전 당시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주이시 크리스천의 시작으로 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와 구별되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교 교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이들은 토라를 준수하고 안식일, 유대력 등 유대 전통을 고집하였고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은 수 세기를 지나 현대에 이르러 개신교, 가톨릭, 성공회 등의 기독교 교파에 나뉘어 개종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기독교 안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19C에 25만명 가량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3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160만 명의 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로 동화된 유대인 개종자들이 모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일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주이시 크리스천과 메시아닉 유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유(Messianic Jew_메시아닉 유대교)와 주이시 크리스천(Jewish Christian_유대인 크리스천)은 역사적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요소를 기독교 교리와 통합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택한 자들을 남겨 두시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사1:9)

한편,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모습을 좀더 엿볼 수 있습니다.

“20.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찌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

는 공의로 훼멸이 작정되었음이라”(사10:20-22)

“ 7.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굽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렘31:7)

“남은 자”(왕상19:18,사1:9,미2:12-13,롬9:27-29)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패역한 길로 갈 때에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남겨 두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의 가족을 남겨 두셨고(창6:5-8) 애굽 왕 바로가 유아를 학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겨 두셨습니다.(출2:1-10)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내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 두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민14:30,32:12)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칠천 명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 두셨습니다.(왕상19:18)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 두시고 두 지파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왕상12:19-24)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남 유다 역시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실한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10:20-21)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군의 칼날에 성안에 있는 백성들이 살육 당할 때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습니다.(마24:22)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신실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두 짐승

용, 곧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환상을 본 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의 환상을 또 보았습니다. 이 짐승 둘은 마지막 때 끝자락에 성도들을 환난에 던지는 나라와 왕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마지막 때의 짐승, 곧 그 나라는 종교 왕국이고 그 나라의 왕은 종교적인 인물, 교황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경찰권을 행사하면서 온 세상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세를 물려받아 대신 경찰권을 행사해줄 나라와 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땅에서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대륙의 국가로서 온 땅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나라와 왕입니다. 이 두 짐승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온 땅을 통제하며 대환난을 일으킵니다.

일곱 중에 속한 여덟 번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부활한 로마 제국으로 이야기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왕국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마흔두 달, 즉 삼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계13:5)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계13:12)를 경배하게 할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환난에 던집니다. 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계13:11) 특성을 가진 이 두 번째 짐승 역시 나라와 임금이 분명한데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세를 넘겨받은 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

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계13:11),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계19:20) 이런 이유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이 대륙에 속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의 활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필자의 견해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두 뿔은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성격을 말하는데 하나는 세속적 통치자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떤 방식으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줄지 잘 관찰해야 하겠지만 그가 용처럼 말한다고 했으므로 용, 곧 사단의 권세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며(아마도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게 다 죽이게 합니다. 이로 보아 이 자가 또한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는 먼저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를 위하여 온 땅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더 나아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으로 있는 자나 모두에게 오른손 또는 이마에 666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 하게 함으로써 먹을 것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물품도 구입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환난은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과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발부되는 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계13:1-18) 이 컴퓨터 시스템은 정말 짐승같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손아귀에 넣어 버리는데 개인의 정보와 그들의 의지는 마치 상품의 바코드/QR코드 같은 인식 코드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부된 개인 아이디, 적그리스도의 표는 그것을 발행한 자와 부여받은 자가 상호 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를 받음으로써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부받은 아이디를 스캔하여 짐승숭배자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짐승의 666 표를 받은 사람은 그 대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현재도 새로운 형태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를 수용하는 사용자에게 바코드(barcode) 또는 쿼알코드(Quick Response Code)를 부여하고 스캔하게 함으로써 상호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팬데믹으로 몰아넣어 사람들에게 QR코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2주 이내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폐렴 등을 일으키며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질병이 전염성이 높아 통제되기 어려워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발급받게 하고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출입자들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에서는 2020년 6월 10일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필자는 코비드 19가 자연적으로 발현된 바이러스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일으킨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통제사회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위한 기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사회로 몰아넣었고 QR코드를 강제로 부여받게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666 표를 부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자 확인 시스템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필품 거래에 있어서 현금사용을 없애고 디지털화폐(CBDC)만을 사용하는 사회라면 666표의 환난은 성도들에게는 더욱 큰 핍박이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대접 심판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환난의 정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붓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현대의 재앙이 임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붓자 물이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셋째 천사의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부어지니 물이 피가 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죄값으로 저들은 피를 마시게 됩니다. 넷째 천사의 대접이 해에 쏟아지고 사람들은 불로 태워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훼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붓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습니다.
(계16:1-11)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붓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 됩니다. 또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영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이적을 행하며 온 땅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주의 날이 이르면 마귀에게 속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들어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왕과 장군, 군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어 새의 먹이가 되고 심판을 받습니다.(계19:19-20)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자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 만국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 온 세상을 다 스리며 배교적으로 이끌던 음녀의 도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섬도 산악도 없어지고 간데없게 됩니다.(계 16:19) 그리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의 재앙이 내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므로 심히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화(禍)는 적그리스도의 왕국, 곧 만국을 배교적으로 이끌며 복술로 미혹하던 음녀의 혼합종교, 온 땅의 종교를 새끼들로 품어 배교적인 교리로 사람들에게 먹이던 여자의 종교, 바벨론 종교를 멸망시킴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대환난,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제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7년 대환난의 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 144,000명

7년 대환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144,000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의 때를 들여다본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4,000명이 시온 산에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계14:4)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절이 있는 사람들로써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정(童貞)들입니다. 또 계시록 7장 4절에도 144,000명⁶⁾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신 이후에 이마에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계7:4) 이 두 곳에 나오는 144,000명이 같은 무리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인침을 받아 보호되고 환난 후에 주님과 함께 시온 산에 섭니다.

정죄 받은 기독교 이단들은 포교를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속해야 144,000명의 무리 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144,000명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오직 144,000명이라고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속해야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습니다.(벧후3:16)

이 숫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포교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부름받을 성별된 사람들의 수라고 주장하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희의 신천지장막성전은 순교자들의 영이 신천지인 144,000명과 결합하여 영생한다는 이단 교리에 사용하던 숫자입니다. 또한 이 숫자는 안상홍의 증인회에서 구원받을 자가 144,000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하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난리와 소문이 황황해도 믿음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계21:27/계20:15) 이 생명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명부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더욱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요6:53-58)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벧전3:21)

예수께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영생을 가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6:53-58)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롬3:24, 딤후2:11), 선물(엡2:8, 롬6:14, 롬11:6)이며 “하나님의 의”(롬3:22)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사람들의 의”(마6:1)인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144,000명이라고 주장하는 그 어떠한 형태의 교리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단 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엡2:7)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하며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44,000명과 관련하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144,000명의 숫자는 유대인이 아니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숫자입니다.

9 7년 대환난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단8:19)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일으키는 마지막 때의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일흔 이레, 곧 일곱 이레, 예순 두 이레, 마지막 한 이레에 대하여 가르쳐주었는데 학자들은 이 마지막 한 이레를 7년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난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대환난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이레, 곧 7년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의해 발생하는 대환난과 동일시하여 7년 대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이레를 세상 마지막 때에 정치적인 세상의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 대환난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니엘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를 빼버림으로써 적그리스도 왕국이 형성되는 역사를 바로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은 없으며, 오히려 고대 로마 제국 이후 적그리스도의 왕국, 작은 뿔이 일어나 중세 근대 현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르러 온 세상의 권세를 얻어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는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데 왕 다리오 원년에 성경을 연구하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대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이 70년간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

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단9:11)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기도했습니다.

“16.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취시옵소서

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바 됨이니이다”(단9:16-19)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단9:23)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70 이레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끓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단9:24-27)

먼저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이 환상(이상.異像)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뒤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고(단8:19)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24)라고 말함으로써 70 이레의 계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계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의 계시임을 보여줍니다.

7년 대환난은 다니엘의 70이레 중 69이레 이후 마지막 남은 한 이레, 곧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 그리고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27)이라고 예언된 7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27)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25)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B.C 539년 바사 제6대 아닥사스다 왕 재위 20년에 느헤미야가 왕을 대면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무한 것을 슬퍼하고 근심하자 왕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B.C. 444년 3월 5일 조서를 내림으로써 이 다니엘의 환상은 성취되었습니다.(느2:1-8)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25)이라고 계시한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십 구 이레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69이레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드와이트 펜티코우스트와 로버트 치숍(J. Dwight Pentecost와 Robert B. Chisholm, Jr.)의 연대계산에 따르면 유대력, 그레고리력 모두 7이레와 62이레는 483년으로서 B.C. 444년 3월 5일부터 A.D. 33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가브리엘이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26)라고 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

시고 장사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어 가브리엘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26)라고 한 계시는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시킴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끝이 났으며 속해졌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난이라는 이슈가 대두되는 것은 7년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70 이레 중 마지막 한 이레,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의 계시가 A.D. 70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세대에 이루어지는 계시와 함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계시가 연이어 선포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에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포되었습니다.(마24:15-28/29-31)

7년 대환난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칠(7)년 대환난이 다니엘의 일흔(70) 이레 중 일곱(7) 이레 그리고 예순 두(62) 이레에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한(1) 이레의 시작을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부터 7년 동안 대환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 사이의 평화 조약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곳, 예루살렘 모리아 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곧 다윗이 정한 곳(대하3:1)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국으로 나뉘고 남 유다 왕국도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바벨론에게 B.C. 586 멸망하고 흩어져 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주인 잃은 그 팔레스타인 땅은 후에 아랍인들이 정복하고 거주하면서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리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라며 그곳에 바위 사원을 짓고 황금 돔을 세워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들의 땅이고 또한 아랍 사람들의 땅

이어서, 성전의 터가 서로의 성전 터라서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은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 선언하고 국가를 수립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은 신생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차 중동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 주변 아랍 국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요르단은 서안지구를, 이집트는 가자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또 1967년 6월 5일 '6일 전쟁'으로 불리는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차례로 공격하여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시리아의 골란고원, 가자지구 그리고 이집트 시나이반도까지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상태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내몰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1964년의 비밀결사조직으로 출발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 모습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여러 단체와 연대해 이스라엘과 대치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 사이의 평화는 앞이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약 2500년 이상 팔레스타인 땅을 서로가 순차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갈등의 골이 깊이 파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평화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아랍 국가들과 7년간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그렇게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약 중간 3년 반에 이르러 조약을 파기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면서 후삼년반 동안 성도들을 환란 가운데 던지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7년 평화협정이면 전 3년 반 동안 환란이 없을 것이고 전 3년 반 동안 평화한 상태로 보냈다고 가정하면 3년 반 후에 바로 제사를 폐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숭배를 강요하는 666 짐승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후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666 '짐승의 표' 환란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환란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 임하는 세계적인 대환난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한 이레의 사건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중동평화 협정이 맺어지는 날로부터 7년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의 마지막 한 이레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뉘면서 유다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던 중 주전 198년부터 셀류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레니즘화를 시도하던 셀류쿠스의 8대왕 안디오쿠스 4세 때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주전 167년 12월 16일에는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치며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한 이레의 사건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이레의 사건은 유대인에게 관련된 사건으로서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치는 대환난으로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난의 정점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그가 유대인을 포함하여 온 땅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666 환난을 일으키기 때문에 계시록의 짐승의 대환난이 다니엘이 말하는 70 이레의 마지막 남은 한 이레가 중동 평화협정 조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그러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평화협정일로부터 7년 대환난이 시작된다는 종래의 해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평화조약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평화협정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종교적 인물이기 때문에 교황에 의하여 그 조약이 성사될 것입니다. 중동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7년 대환난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난이 일어나려면 세계 단일정부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 땅에는 먼저 코로나 19 같은 세계적인 유행병, 세계적인 가뭄과 기아, 세계적인 식량난, 세계 공동의 자연재해, 세계 공동의 경제난 등등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 위기가 지구촌에 발생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세계 단일정부 수립에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재난의 정황들이 발생할 때 UN이 세계 단일정부로 변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세계 단일정부의 대통령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회(계3:9)가 그러한 일들을 조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권세를 나누어 받은 10명의 왕 같은 통치자들이 세계 단일정부를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그러한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계 패권 국가인 대륙 국가와 그 대통령에게 권세를 넘겨주어 그가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다. 그 환난의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계13:5)

유감스럽게도, 계시록에는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이 없으며 “7년 대환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삼년 반’, ‘후 삼년 반’으로 환난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를 바라보려면 우리의 관심사는 7년 대환난이라는 말에 집착하기 보다 종교통합과 배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환난 사건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666 짐승의 표의 환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짐승, 적그리스도는 환난 전에 일어나 온 세상의 종교들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때에 세계의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므로 성도들은 종교통합과 교회의 배도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세계 교회를 배도 하도록 만들고 온 세상의 종교를 하나의 혼합종교로 만들며 세상을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또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환난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 네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휼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궤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단8:20-25)

다니엘이 본 환상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서는 ‘한 왕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대하여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단8:17,19) “네 나라의 마지막 때”(단8:23) “여러 날 후의 일”(단8:26) 이라고 가르쳐줌으로써 종말에 있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23)고 가르쳐주었는데 요한은 그 왕이 여덟 번째 왕, 적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준 헬라로부터 생겨난 네 나라 마지막 때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25)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2:8)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얼굴이 엄장하고, 술수에 능하고 큰 권세를 받고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성도들을 멸하는 자입니다.(23,24)

그뿐 아니라 그는 큰 말을 하고 입을 벌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계13:5-7)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변경하며 성도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6개월 동안 성도를 환란에 던지는 자입니다.(단7:25) 그런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평화한 때 무리를 멸한다고 말하고 있어서(단8:25) 그가 마지막 때 온 땅을 통치하려는 야심을 이루기 위해 평화한 때에 사람들을 멸하는 일을 꾸밀 수도 있어서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악마적인 왕,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전에 앉아 경배받기 위하여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종교 왕국에 이어 두 번째 짐승, 곧 세계 패권 국가인 대륙 국가가 나타나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첫 번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얻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강요하고 그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 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관계없이 그를 경배한다는 표시로 666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환란 가운데 던집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티칸 시국이고 그 나라의 왕은 교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면 그의 권세를 두 번째 짐승, 대륙 국가인 세계 패권 국가에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짐승의 대환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하여 패권 국가의 지위를 이어간다면 두 번째 짐승은 대륙 국가인 미국일 가능성이 크고 그 왕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왕은 온 땅의 나라들에 대하여 경찰국가의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왕이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계시되어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이 두 번째 짐승, 대륙 국가의 대통령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에 업은 음녀의 종교는 큰 도성으로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기 때문이고 또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그 도성의 왕이기 때문입니다.(계17:18)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어떻게 성취할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국 속에서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다스리는 짐승의 큰 환난을 앞둔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14:9-12)

짐승의 표 666의 환난의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이마 또는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벌의 기간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짐승의 환난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삶을 지탱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거래를 제지당하고 식물을 얻는 것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잔인한 핍박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내어몰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의 때를 이겨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련의 때를 견디어야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시록에는 짐승의 환난의 때에 은혜의 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시대의 성도들이 휴거 된 후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로서 ‘남은 자’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성도들도 이 “남은 자”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에 남아 환난의 때를 지나게 될까요?

그런데, 또다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재앙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큰 환난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15:3-4)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의 특징은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1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율법:the commandments of God)’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시온 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14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음을 봅니다.(계14:1) 그러므로 마지막 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환란을 통과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환란의 때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대환난을 이겨 나아가는 상황에서도 교회의 성도들이 짐승의 환란과 싸우는 모습이나 휴거되거나 환난을 통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대환난을 이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복된 위로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계14:12-13)

인자 같은 이의 추수, 휴거인가

요한은 이 땅에 닥칠 마지막 환난을 예고하는 세 천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여러 나라와 족속 방언과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7. ...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14:7)

첫 번째 천사가 말한 이 심판의 시간은 계11:18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the time)”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the hour)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계14:7)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함께 온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므로 이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은 다니엘에게 계시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나라, 곧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심판과 구원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온 땅의 족속과 방언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고했습니다.(계14:7)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를 뒤따르며 “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

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에 업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용했던 음녀의 종교 왕국, 바벨론 종교가 멸망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음녀의 혼합종교는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뒤따르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9.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14:9-11)

이 세 번째 천사는 666 표를 받고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심판을 받습니다.(계 14:12) 이 마지막 세 천사의 예고와 관련하여 그 마지막 환란을 이겨내는 데 인내가 필요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닉 주와 주이시 크리스천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임을 배웠습니다.(계 14:12)

마지막 짐승의 환란을 이겨 나아가야 하는, 그 대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교회의 성도들 또한 환란 전에 휴거 된다는 분명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666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심판이 내리기 전에 두 종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추수(계14:14)가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성도들은 착각을 세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첫 번째 추수를 휴거로 해석하려 하며 다른 이들은 휴거로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본 추수의 환상입니다.

(1) 첫 번째, “인자 같은 이의 추수”

“ 14.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14:14-16)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진 세 천사에 의하여 혼합종교인 음녀의 도성 바벨론 종교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과 그들이 영원한 불과 유향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된 후 그 멸망이 땅에 이르기 전에 땅에는 두 번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요한은 금 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날 선 낫을 들고 추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도의 휴거에 대한 실마리를 계시록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수가 “휴거”일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하여 학자들도 그리스도와 천사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휴거로 보려 하는 반면 어떤 학자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자 같은 이”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이 환상을 휴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자 같은 이”를 다니엘서에서 발견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one like the Son of man)”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계시록 14장 14절에서도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one like a son of man/one sat like unto the Son of man)”가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포드(Alford)는 성도를 추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다른 학자는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엑세란데”가 “너무 익었다, 시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로 해석하지 않으려 하고

또 낮을 대는 것을 심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의 추수”를 휴거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때실 때 환난에서 하나님의 종 144000명이 인침을 받아 보호되고 능히 셀 수 없는 열방의 성도,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서 나왔고 여섯째 인의 환난까지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 짐승의 환란까지도 교회의 휴거 정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휴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짐승의 표 대환난 전인지 후인지가 관심사인데 “인자 같은 이의 추수”의 환상을 요한이 보기 전 땅에 전하는 마지막 세 천사 중 세 번째 천사의 말을 살펴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계14:9b10)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짐승의 표 환난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지 않는데,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휴거라면 짐승의 환난 전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추수”는 하늘에서 추수를 하는 것이므로 하늘 처소로 거두는 것이고 또한 예수께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향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마24:40-41) 말씀하신 재림의 정황, 휴거 역시 하늘 처소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말한 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이 휴거이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2) 두 번째, “천사의 추수”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낮을 가졌더라

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일천 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계14:17-20)

이 땅에서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진 후,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 낫 선 낫을 들고 휘둘러 포도송이, 악인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 곧 290km에 퍼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인자 같은 이”의 추수와 “하늘 성전에서 나온 천사”의 추수가 있고 나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1 1

재림과 휴거 10)

환난 전 휴거에 관심이 있다면 계시록의 타임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황이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휴거는 주의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이므로(마24:29-31,살후2:8) 계시록에서 재림의 정황을 찾아야 하고 그 재림의 정황을 짐승의 대환난 전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이 발견될까요? 인의 환난에서부터 나팔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휴거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The time), 그 정황

주의 날,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회인가? 그러면 그것은 공중 재림인가? 아니면 지상 재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회인가? 그렇다면 재림은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후에 지상 재림이 있는가?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지상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과 함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처음 들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이끌려간 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4:1)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오른 요한은 천상의 예배광경을 보게 되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안팎으로 쓰여진 일곱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뿔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환난이 하나씩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일곱 나팔의 환난이 준비되고 천사에 의해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더 큰 환난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나면 다시 일곱 대접 재앙이 예비되고 이 땅에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이후로 다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부을 때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5. 보라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16:15)

이 말씀에 대하여 존 왈부드(John F. Walvoord)는 세 더러운 귀신의 영이 온 땅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상황에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하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적었으면 주의 재림은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을 지난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 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고 주의 재림이 지상 재림 1회라고 가정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이전의 사건들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임합니다.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고 바다는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자 피가 되어 성도들과 선지자에게 피를 흘린 자들로 인해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고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이 임하게 되고 강박해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자 그의 나라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 자기 혀를 깨무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어 요한이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져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주의 재림이 1회의 지상 재림이라면 성도들은 짐승의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합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주의 재림이 적그리스도, 곧 짐승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으로 이야기하는데(살후2:7,계19:19-20) 이때는 주의 재림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지상 재림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또한 주의 재림의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 휴거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는(고전15:51-52,살전4:16-17)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의 날 휴거의 사건으로 보여져 주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그리고 요한이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고 강물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환상을 본 때에 주께서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일으키는 666 짐승의 표 대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라고 하신 말씀이 타임라인에 따라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테 강에 쏟아지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요한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께 들은 말씀을 그곳에 적어 놓은 것이라면(살전5:2,4, 벤허3:10) 휴거는 666 짐승의 표 대환난 이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날 휴거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셨고 계시록의 19장 11절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는 휴거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분리되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주의 재림의 환상은 계시록 19:11-16에서 구름을 타시고 지상에 발을 딛는 지상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휴거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의 임하심은 지상 재림이 아닌 휴거를 위한 공중 재림의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공중 재림이라는 뜻은 주께서 지상에 발을 딛지 않으시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하늘 처소로 들려 올라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발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땃돌을 가는 여인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의 정황은 공중 재림의 정황으로 비쳐지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공중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주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면 요한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환상을 본 때에 기록한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그때 들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이로 인해 교회의 성도들이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약 교회의 성도들이 짐승의 대환난, 적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666, 짐승의 표의 대환난을 지나야 한다면 그때는 은혜의 때가 끝난 후에 있을 마지막 환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휴거의 사건이 은혜의 시대 끝자락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난 전에 주의 공중 재림과 휴거를 통해 건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닫혀진 계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재림의 때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없지 않아서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도와줍니다.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24:30) 말씀하신 주님을 고대하는 영광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주의 재림은 “휴거”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시 임하시는 “주의 날”은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7년 대환난”의 두려움 때문에 주의 재림이 대환난에 앞서는지 뒤서는지 성도들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⁷⁾ 그 관심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재림의 정황들”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휴거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합니다.(마24:39-41, 살전4:16-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이루어질 것인데 휴거가 있고 나면 들림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계 19:1-10) 주의 재림이 환란에 선행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에 의해서 증거되었습니다.

- "6.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6-11)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단으로 정죄 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밀리에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장엄하게 임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4:13-17)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 곧 “주의 날”에는 예수께서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가르쳐줍니다.(14) 그날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성도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으며,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지구촌 사람들은 TV와 휴대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실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은 천사들과 함께 병풍처럼 둘러싸인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매우 장엄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마16:27,살전4:14, 골3:4) 그러한 광경을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7. 불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타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계1:7)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재림과 휴거의 시간은 주의 영광스런 재림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썩을 몸이 주님처럼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됩니다.(고전15:44,빌3:21)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15:51-52)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의 재림의 날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롬8:11)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또한 살아 있는 성도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시간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30-31)

주의 가르침은 주의 재림 시 천사들을 보내 온 땅 위의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휴거입니다. 휴거의 정황은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던 두 여자 가운데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마24:40-41)

그런데 주께서 가르쳐주신 재림과 휴거의 정황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7)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주의 재림 시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서고 살아 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고 휴거 된 후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하늘 처소에서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바울은 주의 재림 시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4:14)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골로새서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 라고 가르쳐주는데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4:14) 라는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이미 이루어져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주의 지상 재림의 모습은 이미 하늘 군대가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를 따르고 있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구절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이미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지지해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재림은 휴거를 위한 공중 재림으로 이해됩니다.

요한이 본 계시록 19장의 주의 재림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계19:15) 그러므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재림과 요한에게 계시된 주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중 재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시록19장 14절에 나타나는 666 짐승의 표 대환난을 지난 후 주의 지상 재림과 함께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휴거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24:29-31)

“4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
니라”(마24:40-41)

주께서 가르쳐주신 재림의 날은 “그 날 환난 후에”라고 하심으로써 환난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휴거도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주셨
습니다. “그 날의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
다. 왜냐하면, 그날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라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바로 후에 재림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
조”에 대하여 물었고 주께서 “그 날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환난 후
에 주의 임하심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 천체의 질서가
흔들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
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말씀했습니
다. 아직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그 날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신 환난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겠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정황은 밭에 일하던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갈던 여인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으로 보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임하심”은 휴거를 동반하는 공
중 재림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인의 환난,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에서 보면 계시록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
이 이 땅에 부어졌을 때 요한은 주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록한 것이라면,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이 땅에 주의 재림과 휴거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이 지난
상태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대접 심판을 받은 상태
이기 때문에(계16:1-16) 교회의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주의 임하심’이 공중 재림이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맷돌을 가는 여인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환난 전에 일어나는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환난 전 휴거의 정황을 계시록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휴거 정황으로 지목할 수 있는 구절은 계시록 14장 14-16절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유일합니다.

요한은 이 “인자 같은 이의 추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날 선 낫을 든 천사가 악인들로 비유되는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휴거인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추수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인자 같은 이의 추수”는 앞에서 배웠듯이, 마지막 때 세 천사가 땅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곧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또 두 번째 천사가 음녀의 종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 선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받는 고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후에 이루어집니다.(계 14:6-11)

이렇게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남은 자들이 짐승의표, 666 대환난을 이기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줍니다.(계14:12) 이때까지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섯 번째 인의 환난에서 나온 이후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교회의 휴거”라면 휴거는 짐승의 환란 전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짐승의 환난’의 때에 인내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계15:2-3) 여기서 우리는 짐승의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메시아닉 주와 같은 율법과 예수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임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마지막 “인자 같은 이의 추수”의 대상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교회, 곧 성도들의 “휴거”라면 짐승 666 환난 전에 교회의 성도들이 휴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림의 사회적 징조 그러나 닫혀진 D-day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소문으로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살후2:1-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은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재림의 소문에 따른 동요는 성도들의 믿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요가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92.10.28.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던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에서 1500명의 신자들이 모여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춤을 추는 신도들의 모습이 MBC 방송국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바치며 D-day, 28일 당일 휴거 되기 위해 모인 신도들은 자정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휴거가 없자 소동으로 끝났고 이장림 목사는 9월 25일 신도들로부터 34억원의 재산을 헌납받아 구속되고 12월 4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하여, 휴거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릇, 사도 바울은 동요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단초(端初)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 이전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Sign)였습니다. 그 재림의 징조는 다름 아닌 온 땅에 여기저기 배도의 기운이 돌아나고 개인적 차원이 아닌 세계적인 배도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비밀”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마귀의 화신인 짐승,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습니

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국과 그 나라의 왕,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황이 온 세상의 종교들을 로마 가톨릭의 품으로 끌어모아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는 움직임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세계의 교회는 배도의 물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 교회는 종교통합과 배도의 물결을 거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도의 물결이 온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바울은 이처럼 가르쳐 줍니다.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2:1-4)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요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문제로 성도들을 동요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저런 종말론에 여기저기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기다려야 하는 사건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의 부활 사건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 받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히2:15)

휴거는 불완전한 성도들의 몸을 완전하게 구속하시는 사건이며 (롬8:22-23, 살전1:10) 천사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 받는 영화로운 사건입니다.(고전15:51)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성도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사건이고(살전1:10)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 올려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한 혼인 잔치의 사건입니다.(살전4:16-17)

주의 재림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건이며(살후1:7)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건이고(고전15:24,살후1:8)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핍박한 악인들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살후1:8)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옛 뱀(계12:9), 세상 임금(요12:31,14:30), 공중권세 잡은 자(엡2:2), 온 천하를 꺾는 자(계12:9)로 불리는 사단을 잡아 가두고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모두 지옥 불에 던져 넣기 위함입니다.(살후2:8,계10:20, 20:10)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온 세상의 권세를 한 손에 움켜쥐기 위해 숨어 있던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와 작은 왕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온 세상이 따르는 여덟 번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바티칸 시국의 교황의 권좌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온 세계의 종교권과 지상통치권을 얻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신격화되고 온 땅의 사람들을, 특히 성도들을 큰 환난에 던질 것입니다.

그는 음녀의 바벨론 종교를 등에 업고 그 거대한 혼합종교체제를 이끌면서 온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며 참람한 말을 하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 받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 정치 구도 속에서라면, 그가 온 세상의 지상통치권을 얻으려면 세계 단일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어야 하는데 유엔(UN)이 세계 단일정부의 역할을 하거나, UN이 세계 단일정부로 전환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 시국의 교황이 유엔의 세계 대통령으로 추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의 견해로, 그는 자신의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세계정부에 내에서 지구촌을 분할통치하는 10명의 왕 같은 통치자, 10뿔을 거느리며 그들로부터 권세를 넘겨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계19:11-21)의 주의 지상 재림은 천년왕국 전, 즉 짐승의 대환난 후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의 재림이,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살전4:17),휴거를 동반하는 공중 재림의 모습이기 때문에 휴거가 주의 지상 재림과 분리되어 먼저 일어나는 공중 재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표 환난 전에 휴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대환난과 관련한 주님의 재림, 그 D-day는 닫혀진 계시이고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의 666 짐승의 표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성경이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의 예언이 점차 온전한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주의 날에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휴거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마24:37-41)

이 말씀은 의외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발생하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사회적으로 요동치는 큰 환난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밭에서 논에서 평온하게 일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마태복음 24:29절에서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마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24:29-30a)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의 재림의 전조, 곧 자연계의 변화와 주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큰 마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성도들을 모아 주께로 데려 올라가는 장엄한 모습이 갑자기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살전4:16-17)

예수께서는 “그 날 환난 후에,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KJV),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NASB), after the distress of those days(NIV)”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고난, 시련(tribulation_KJV,NASB), 고통,

괴로움(distress_NIV)의 시기가 있고 성도들이 견디고 이겨 나아가야 하는 시련의 때가 주의 재림 전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때에 관한 대화에서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마24:3)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미혹”(마24:4)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마24:5)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마24:6)이 들릴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마24:7)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마24:7)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마24:7)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마24:9), “너희를 죽이고”(마24: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마24: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마24:10)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마24:10)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고”(마24:10),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마24:10)이라고 환난의 때의 정황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13) 말씀하심으로써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견디어야 하는 환난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주신 마지막 때의 환난의 내용 가운데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666 짐승의 표 대환난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마24:14)이고 그때가 되어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14)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가운데, 자연계에 있을 징조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그중 지진의 상황은 우리의 피부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2일부터 2022년 6월 7일 현재 진도 2.0 이상의 국외 지진 현황을 검색한 결과 2022.06.07. 일본 이시가키섬 북북서쪽 187km 해역에서 진도 5.2 지진 발생, 2022.06.01. 중국 쓰촨성 야안시 북서쪽 42km 지역 진도 6.1 지진 발생, 2020.03.26. 중국 칭하이 하이시 북쪽 125km 지역 진도 6.0 지진 발생 등 1,090건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지구는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2.06.07. 현재 뉴스는 중동 지역 전쟁 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침공하는 뉴스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로 넘쳐나고 불법이 성하고 있으며 지구촌 끝자락에서는 기근과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지구촌의 상황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촌에서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바티칸 시국은 종교통합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6.23. 카네기재단 주도로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종교지도자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을 치르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한국 내에서는 2014.5.22.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대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하여 가톨릭과 기독교 간에 신앙 일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개신교 교회는 WCC를 통하여 일치 운동을 하고 있으나 다른 종교까지 포용하고 있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배도의 기운이 세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살후2:3) 라고 말한바 주의 재림의 사회적 징조인 세계적인 “배도”가 구체화 되고 있으므로 주의 재림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배도가 무르익으면 그 뒤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고 계시고(Lord is coming now.) 또한 주를 대적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 그(he)가 지금 오고 있는데 (He is coming now.) 그가 모습을 드러내면 그가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의 날 “휴거”가 일어나는 때의 정황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삶에 열심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왕좌를 높여 가고 성도들조차 666 환난의 긴박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짐승의 표 대환난에 대응하려는 성도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보

이지 앓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가르침에는 오히려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맷돌을 돌리는 한가로움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늘로부터 주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천사들에 의해 휴거가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24장 29-31절 과 40-41절의 사건이 공중 재림과 휴거로 보이므로 주의 날은 갑작스럽게 주의 재림의 징조가 발견되고 들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야외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장에서,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항만에서, 배 위에서,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이곳저곳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생각지 않은 날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영적으로 둔하고 세속적이며 주의 재림에 대한 감각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3:4)라며 무감각하고 더디 믿는 불신앙에 빠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재림의 때는 닫혀진 계시어서 특정할 수 없을지라도 깨어 있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들(마 24:42-44, 살전5:2, 벧후3:10, 계16:15, 살전5:4)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 대환난 전 그 가능성의 리뷰

예수께서 요한에게 내리신 계시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 8.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계 3:7-10)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말기 주후 95~96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므로 우리는 빌라델비아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마지막 “환난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의 기간은 계시록 6장 예수께서 인을 떼시는 환난에서부터 시작하여 13장 짐승, 적그리스도의 666표 대환난의 때까지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시험의 때”가 적그리스도, 짐승의 수 666 대환난의 때라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라고 말씀하신 헬라어 ‘면하게’는 ‘엑(ἐκ, 밖으로)’라는 뜻으로 시험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을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유하는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정부의 감시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환난을 휴거를 통해 피하게 하신다면, 적그리스도에 의한 666표의 대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를 통해 시험의 때를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이 이 땅 위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면, 휴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여섯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켜 행음하던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나 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음행에 참여하던 성도들처럼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함께 휴거 되어 들려 올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음행에 빠진 성도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볼찌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
 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계2:21-22)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욱 많은 열매를 맺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속에서도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적 신앙생활에 빠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 144000명의 인 맞은 주의 종들이 나아오고 또 온 땅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계7:14) 이때까지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때 큰 환난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계7:17)

앞서, 계시록 6장에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자신의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는데 주께서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저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저들과 같이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교자의 무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의 환난에 이어 여섯 번째의 인이 떼어질 때도 144000명의 주의 종들과 함께 각 나라와 족속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순교자의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왈부드(John F. Walwood)는 이 무리가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예수의 피로 죄 씻김 받아 희게 된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계7:9)인데 여기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은 유대인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족속들 곧 이방인들이 환난에서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계7:9,10,14) 존 왈부드는 이들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속죄함을 받은 열방의 이방인들은 교회의 성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인의 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진 순교자들과 여섯 번째 인의 환난에서 열방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순교자들의 사건을

역사 속에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세 시대의 교황권에 의한 순교자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에서 나온 이후 더 이상 교회가 환난을 지나는 모습이 계시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휴거를 말씀하셨고, 교회와 성도가 여섯 번째 인의 환난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여섯 번째 인의 환난 이후 휴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져, 계시록에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계14:2,19:8 등 15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짐승의 표 666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666표 환난을 “휴거”로 피하게 된다면(계 3:17) 그리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며 용납했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아 짐승의 큰 환난에 던져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휴거는 짐승의 환난 전 부분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부분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부분 휴거이고 계시록 19장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을 지상 재림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 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24:15-31)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 환난 후에 즉시”라고 말씀하신 ‘환난’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었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즉시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30)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닌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연관된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이 환난 후에 있다고(29) 말씀하심으로써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됨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물었을 때(마24:3) 예수께서 마24: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신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일들로서(마24:3-14) 예루살렘 멸망과 크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습니다. 일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 환난 후에”(29) 라고 말씀하신 주의 임하시는 ‘그 날’의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의 환난 후가 아니라 주의 승천 이후부터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의 666 표 대환란까지 이르는 마지막 때의 긴 환난의 기간의 끝에 있을 마지막 환난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마24:15-28절까지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 마지막 때의 긴 환난의 기간에 “짐승의 표, 666 대환란”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 안에서 어느 시점에서 주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말씀하셨으므로 만약,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인내로 견디어야 하는 그러한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포함된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마지막 짐승의 환난을 지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환난 전에 휴거로 들림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다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13)하심으로써 이 환난의 때가 적그리스도, 짐승의 환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주신 휴거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별도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 환난 전 주의 공중 재림과 휴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견해에서 바라보면 주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짐승의 환난과 관련하여 신실한 성도들을 짐승의 표 666 대환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반면에 두아디라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던 자와 버가모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며 음행에 빠진 성도들을 환난에 던지시겠다고 경고하신 주의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이 짐승 대환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주께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부어진 후

주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계16:15)라는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의 때까지 주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면 주의 재림과 휴거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666표 대환난 후가 되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짐승의 대환난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 환난의 때를 교회의 성도들이 통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짐승의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유대교 그리스도인”(계12:17)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환난 전에 휴거 되어 주께로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상태라는 해석이 지지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주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닫혀진 계시로 남아 있어서 온 교회의 휴거가 짐승의 대환난 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부분 휴거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대환난 후에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으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주께서 어느 때에 임하시든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에게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온 땅을 깔고 앉아 땅 위의 사람들에게 음행의 교리로 젖먹이며 온 땅을 더럽혔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불리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가증한 혼합종교,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자줏 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화려함과 부요함에 취해 있는 이 여자의 손에는 금 잔이 들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교황의 손에 들린 금잔을 보았습니다. 이 여자를 숭상하는 종교는 중세에 이르러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여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음녀는 고대 이후로 온 땅을 다스려 왔던 연이은 7개의 제국, 특히 로마 제국 위에 앉아 온 땅의 사람들을 배교적 교리를 먹이며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려 왔습니다. 7번째 짐승의 머리,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온 세상의 권세를 주어 준 이 거대한 음녀 바벨론은 짐승과 10명의 제왕적 왕들의 배반으로 인해 망하게 되고 벌거벗

겨지게 되고 살이 먹히며 불로 살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계17:16) 이 음녀의 종교적 권세가 너무나도 커서 그녀는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는 커다란 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배웠습니다.(계17:18) 이 음녀의 비밀스런 속성이 이교 우상 숭배의 근원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이교 숭배의 근원으로서 바벨론이라 불려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음녀, 바벨론으로 지칭됩니다.

한편, 이 여자는 작은 도성을 가진 나라이지만 지극한 부와 사치로 스스로를 영화롭게 만드는데(계18:7) 그곳은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계18:2)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나와 그 도성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도성이었습니다.(계18:4) 이 도성은 만국을 부패한 교리로 무너뜨리는데 이 일에 온 땅의 통치자들도 동조하여 온 땅을 음행하게 하고 상인들도 이 도성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여 땔 수 없는 한 지체가 되어버립니다.(계18:3) 이 상인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값진 나무와 진유(Bronze_청동으로 만든 물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거래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제의와 관련된 상품들인데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하는 도성이라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계18:13) 이 성은 크고 견고한 성으로 불리는데 이 나라는 견고하여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계13:4)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성 바벨론을 일시간에 심판하십니다.(계18:10)

바다를 오가며 거래하던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불타는 이 견고한 성을 보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와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탄식합니다.(계18:10) 이 견고한 성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땅의 왕족들과 거래하던 이 도성은 만국을 미혹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불타는 성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발견됩니다.(계18:24) 이 바벨론 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요한은 “그(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라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계19:2)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적으로 온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던 음녀의 도성이 불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주께서 지상 재림하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요한은 음녀의 도성 바벨론이 불심판을 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고 신부들이 초대됩니다.(계19:1-2) 그 소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큰 뇌성 같은 소리였습니다.

“6...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iero다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계 19:6-9)

이때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했습니다. 천사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말했습니다.(계 19:9)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타임라인을 따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역사의 대단원이므로 주의 지상 재림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때, 환난의 때

마지막 때의 대환난이라는 말은 은혜의 때를 지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란의 때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데 짐승의 대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의 때를 지나야 합니다. 그렇게 “환난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은 “은혜의 때”(고후6:2)가 끝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은혜의 때”와 “환난의 때” 사이에 신앙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받은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666 표 “환난의 때”를 거쳐 가야 한다면 이때는 구원은 믿음에 행위가 포함되는데 마지막 때에도 중세의 성도들이 로마가톨릭 교회로부터 환난과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시련의 때를 지나야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로 승리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난의 시대” 앞에서 마쳐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 사이에서 획을 긋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것이 휴거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은혜의 때가 마쳐지는 때에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그리스도의 환난의 때가 시작되었는데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회의 성도들도 중세의 성도들처럼 “은혜의 때”를 지나 “환난의 때” 곧 “믿음과 행위”의 때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야 한다면 환난을 극복해야 하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구원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 끝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주신 재림과 휴거의 정황은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마24:29)라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천체지변(天體之變)이 일어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어서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에서 돌아가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처럼 주의 재림에도 하늘로부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지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영광스런 광경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휴거 사건은 밭에 일하는 남자 하나와 맷돌을 가는 여자 하나가 들림 받는데 의외로 평온한 일상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고 삶의 자리에 적그리스도의 666 환난으로 인해 성도가 겪는 핍박의 정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휴거의 정황은 재림 시 들림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어 땅으로 내려온다는 후속 말씀도 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마24:3)가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오히려 평안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갑작스런 하늘의 징조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휴거가 중심 사건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9장 말씀에 의지해 주님의 재림이 짐승의 환난 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원화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경의 가르침은 온전하게 보전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666 큰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주의 공중 재림과 휴거가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 시대는 휴거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한 666 짐승의 표 대환난의 때를 교회의 성도들이 지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계15:2) 성도들이 짐승의 환난의 때를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분명한 성경 구절은 계시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이어져 짐승의 환난의 때가 진행되고 주의 재림과 휴거가 짐승의 환난 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중세에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마지막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의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일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체의 변화도 갑자기 일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늘 깨어있어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주님 맞이할 삶의 옷을 입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곧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계19:8)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계19:8)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때에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롬13:1-14)

혼인 잔치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천국과 관련하여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신랑 집에서의 혼인 잔치를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찾아옵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이 먼저 나아와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 열 처녀 모두는 혼인 잔치의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 명의 들러리 신부 친구입니다.(마25:1)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할 이 친구들은 신부와 함께 신랑집 저녁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비유하여 천국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 열 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 대환난 시기의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들고 신부의 신랑을 기다리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자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졸며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재림 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깨어 기다리던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로 베풀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를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세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전 1:30,2:7)하나님의 비밀(골1:26-27,2:2), 하나님의 은혜(엡2:8,딤후2:11), 하나님의 의(롬1:7,10:3), 하나님의 약속(롬1:2,고후1:20)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엡2:8-9) 이 비유는 종말에 있을 유대인들의 특별한 구원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열 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 세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깨어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믿음을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짐승의 대환난의 때를 교회가 지나야 한다면 중세와 같이 환난을 극복해야 할 것이지만,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행15:11) 짐승의 대환난 시기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있을 종말의 특별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열 처녀의 비유와 관련하여 천국 혼인 잔치의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마22:1-14) 임금이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아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에 유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잔치에 오지 않고 밭으로, 사업차로 가버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마을을 불사르고 종들을 길거리에 보내 만나는 사람대로 불러 혼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 혼인 잔치에 모여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한 손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을 수족을 묶어 어둠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혼인 잔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혼인 잔치에 들어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롬3:14)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의 비유와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는 같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19:9)에 초대된 성도들로서 모두 깨어 있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천국 비유였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교회 성도에게도 주님과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삶의 예복을 갖춰 입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복을 잘 갖추어 입으려면 ‘그

리스도로 옷 입은 자'(갈3:27)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갈3:27,마24:44) 이러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는 성도들입니다.(골3:12-14)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큰 환난과 관련하여 소문에 요동치 말고 또 여기저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휴거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사건(롬8:22-23)이므로 닫혀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자의적으로 계산하고 특정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현혹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지 예복을 입은 성도들로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들림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마24:40-41)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요한은 천사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19:11)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두 비유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비유이고, 주님과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이므로 주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비유임이 분명합니다. 휴거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서 부분 휴거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지만(계3:10)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열 처녀의 비유가 부분 휴거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지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있는 성도’(마24:42,막13:35), ‘예비하는 성도’(마24:44,눅12:40)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하는 주님의 비유의 본질은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 때를 분별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재림과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 끝자락에 주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이르면 주의 재림 전에 온 세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도를 배반하는 배도 사건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서 성도들은 그러한 배도 사건의 진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의 때(The time)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 때가 점점 더 가까울수록 온 땅에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마지막 때의 상황적 사건들이 일어나고(마24:4-14) 바울이 말한 바 세계 도처에서 배도의 기운들이 돌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배도의 기운들이 온 땅에서 돌아나고 온 땅의 종교들이 로마 바티칸 시국의 로마 가톨릭교회로 통합되고 적그리스도가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난의 마지막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의 날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분명한 배도의 조짐과 전개되는 사건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재림의 전조, 배도

재림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가르쳐주었습니다.(살후2: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려면 바울이 이야기한 세계적인 “배도사건”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계적인 배도의 기운이 여기저기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도하는 일’은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개혁 운동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러한 운동은 WCC, 또 WEA 운동 등이 있습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입니다. WCC는 이렇게 태동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교회의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1927년 스위스 로잔에서 그리고 1937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1, 2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가 열렸고, 1925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937년 4월 영국 옥스퍼드에서 1, 2차 “삶과 봉사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두 협의회는 1938년 5월 유트레히트에 모여 WCC 헌장을 만들며 합쳐졌지만 1939년 발발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1948년에 와서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5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 대표자를 파송함으로써 WCC 1차 세계대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WCC의 반대 입장으로 일어난 운동도 있었습니다. WCC가 공식 창설되던 같은 해 1948년 8월 공산주의 및 로마 가톨릭교회를 반대하는 기독교협의회, ICCC(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가 창립되었습니다. ICCC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근본주의의 입장에 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향했습니다. ICCC는 칼 매킨타이어(Carl McIntyre, 1906~2002)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연합을 지지하며 순수하게 시작된 것으로 보이던 WCC는 1954년 미국 에반스톤, 1961.7 인도 뉴델리, 1968년 스웨덴 옉살라, 1975년 동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1983년 캐나다 밴쿠버, 1991년 호주 캔버라, 1998년 짐바브웨 하라레, 2006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201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세계대회를 열어 에큐메니컬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헛수를 거듭해 가면서 WCC는 개신교회의 일치운동에서 벗어나 비기독교인들도 받아들였으며, WCC 회원권은 동방교회, 옛 가톨릭교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WCC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WCC 회원교회가 아니지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WCC는 점점 기독교에서 벗어나 타 종교에까지 일치운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밴쿠버 대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였으며, 캔버라 대회에서는 범신론적 종교혼합주의 포용하고, 2013 부산 대회에서는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를 포용할 뿐만아니라 심지어 샤머니즘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포용하며 종교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적그리스도가 이룰 것입니다.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복음주의연맹)도 WCC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황청의 로마 가톨릭교회는 WCC 회원교회는 아니지만 WCC에서 업소버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밖에서 실질적으로 종교통합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운동이 바울이 말하는 “배도하는 일”(살후2:3)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통합과 관련하여 온 세상을 통치할 짐승,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숨어 있다가 온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 위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얼굴을 드러내고 종교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통합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월 바티칸 시국의 대통령이자 왕인 교황 프란치스코는 세계의 종교인들에게 종교통합을 권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종교인들의 진심어린 대화가 평화와 정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종교통합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얼핏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세계 평화를 가장한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그가 말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6:14-15)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종교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근본주의자들과 칭하며 적대감을 노출했습니다.

이전에 프란치스코는 스페인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주의 크리스천에 대한 생각을 질문받았는데 그는 “근본주의자들의 그룹은 설령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때리지는 않지만 그것은 폭력이다. 근본주의자들의 정신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다_A fundamentalist group, although it may not kill anyone, although it may not

strike anyone, is violent. The mental structure of fundamentalist is violence in the name of God.”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려는 자신의 의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자 중 또 하나의 근본주의자 그룹은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2019년 2월 2월 초순 아비다드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슬람 지도자 이맘이 세계평화와 생명에 대한 형제애 문서(A document on human fraterniy for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에 서명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근본주의자라고 불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적그리스도가 맞지만 마지막 때의 “그(he)”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4절에 두 증인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증인의 활동이 마쳐진 후 짐승,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므로(계11:1-14) 현재의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때 짐승으로서의 그(he), 곧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설령 프란치스코가 종교통합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그 일을 이뤄낼 여덟 번째 왕, 적그리스도, 그(he)는 교황권좌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거대한 혼합종교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배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생명과 구원의 유일하신 구세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행4:12)에서 돌이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혼합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종교는 새로운 것도 아니며 이미 구약 시대에서 벌어졌던 양태이며(왕하17:41) 영적인 간음행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져서는 안 될 배도 행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권세가 주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정치적 권세가 주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종교적 권세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온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여 영적 권세를 갖게 되고 또한 온 땅을 다스리는 세속적 통치권도 갖게 될 것입니다.(계13:7) 교회가 종교통합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배도하는 일”이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과 관련하여 휴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살후2:1-4)

지금은 마지막 때로서 온 땅을 다스리려는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기의 때에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막고 계십니다.(살후 2:3-8) 그러므로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눈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Sign)을 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일어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살후2:7-8)

재림의 때를 알리는 무화과나무 잎새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재림 전에 배도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적그리스도가 이룰 것이며 모든 종교가 그의 손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손 아래서 종교가 통합되면 그가 영적인 권세를 잡고 또 온 땅을 다스리는 지상통치권을 얻고 나면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느 단계, 어떤 인물에 의해서 완성되는지 지켜보아야 하고, 그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자가 적그리스도, 그(he)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게 된다면 적그리스도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게 되면 마지막 짐승의 환난의 때가 가깝고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26)

주님께서는 주의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때(The time)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닫혀진 계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의 때(The time)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The season)가 무르익어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배도의 사건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고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계시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점만큼은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부지런히 찾아 확인하면 주의 재림을 더욱 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재림의 때(The season)는 분별할 수 있지만 재림의 때(The time)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많아지고 색이 짙어지는 것을 본다면, 곧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영적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세계의 종교를 연합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시기(The season)를 지나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서 돌이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면 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마침내 교회가 세계종교통합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면 배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배도의 사건에 동참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통치권을 세계정부로부터 얻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그가 등에 업고 온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여자의 바벨론 종교 왕국, 바티칸의 큰 도성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각국의 대통령들로부터 권세를 얻어 세계정부의 통치 권좌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온 땅의 지상통치권을 얻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온 땅을 다스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신격화하면서 짐승의 표 666 환난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인 그(he)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의 재림의 때는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3:3)

지금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들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신의 종교 왕국 로마가톨릭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The season)를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때의 그(he)로 보려고 하지만 그(he)가 등장하려면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계 단일정부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프란치스코가 그(he)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프란치스코가 그(he)가 아니더라도 그는 적그리스도 그(he)가 등장할 무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he)가 프란치스코 뒤를 이어 자신의 때에 나오면 그는 로마가톨릭의 품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끌어들이고 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온 땅이 배도하는 사건들을 주시하면서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그(he)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마지막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The time)를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명할 때를 보면 그의 성경에 대한 학문적 경지가 어때 했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되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그립바(Ⅱ세)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찾아왔는데 아그립바 왕은 유대 종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베스도는 그에게 바울을 심문하게 했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고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소명을 듣고 있던 유대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율법과 학문에 경지에 이르렀던 바울(행26:24)은 유대 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삼층천 하늘, 낙원에 올라갔다 온 사도이지만 그러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살전5:1-2)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바울은 당대에 최고의 지성인이고 율법 학자요 넘치는 학문으로 인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능통한 자였지만 주의 재림의 때(The time)를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마24:44,50/눅12:39-40,46)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The season)를 분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The time)가 환난 전이든지 환난 중이든지 또는 환난 후이든지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마지막 때(The season)는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간 속에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The time)를 알려주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사회 현상들을 잘 살피며 주님의 재림의 때(The time)를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2-36)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입니다. 그동안에 무화과나무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 국가독립을 의미하는 징조(sign)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라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예언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이들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무화과나무 비유의 성취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지목할 아무런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The season)가 깊어가는 사인(Sign)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The time)가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Sign)임을 발견할 뿐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사귀가 하나둘씩 돌아나고 점점 더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나무에 잎사귀가 가득 채워지면 어느덧 여름이 되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재림이 가까울수록 번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호(Signal), 징조, 사인(Sign)들로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주신, 이 땅에서 일어날 사회 현상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곧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마 24:33)

지금은 온 땅에 평화, 평등, 인권이라는 광명한 빛과 같은 슬로건 아래 종교들이 하나의 종교체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일이 현재 바티칸 시티국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기독교는 WCC 운동 아래 교회가 하나 되자고 외치고 있지만 이방 종교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명감으로 인해 종교 통합운동에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세계정부를 수립하려는 자들의 시도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종교와 사상과 법규 그리고 문화까지도 일정 부분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 윤리를 각국의 윤리 규범에 따르게 하지 않고 모든 국가를 하나의 성 윤리체제로 확립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양성체제의 전통 사회를 다양한 성 체제로 바꾸어 수십 종에 이르는 성적 취향자들 중심으로 성 윤리, 성 규범, 결혼제도, 양육제도 등등을 획일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적인 시도는 극소수의 왜곡된 성 윤리로서 건전한 사람들이 지켜온 정상적인 성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 거부감 없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꿈꾸는 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C 초, 1717년 석공들의 길드 조직에서 만들어진, 자유로운 석공이란 뜻을 가진 프리메이슨이나 18세기 계몽주의가 대두되던 당시 프로이센에서 비밀결사조직으로 만들어진 일루미나티 같은 인간적인 조직들이 반 교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정부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이 마지막 때에 더욱 활동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조직에 세계의 부호와 정치 리더들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신론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에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루쏘, 몽테스키외, 볼테르 같은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음악가, 괴테, 바이런, 푸시킨, 빅토르 위고 같은 문학가, 로스차일드, 가네기, 록펠러 같은 거부들이 있고 조지 워싱턴, 링컨, 루스벨트, 빌 클린턴 같은 미국 대통령, 영국의 윈스터 처칠 같은 수상 등 많은 정치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상을 새로운 세상의 질서로 만들려는 시도들은 마지막 때와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에른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독일의 아담 바이스하루프트(Adam Weishaupt, 1748~1830)가 창설한 일루미나티 또한 시작부터 기독교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성경을 배격하는 그러한 사상들과 활동들은 적그리스도의 왕국 실현에 커다란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는 연합관계에 있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은 마지막 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세계정부, 또는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자들의 활동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서 돌아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칭 세계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자들, 곧 사단의 회로 여겨지는 세계적인 조직들이 세계 단일정부의 수립을 위해 각국에 일정 부분 공통된 법체제를 구축하고, 단일 성윤리관을 형성하며, 공통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등등 지구촌을 하나의 가치체제로 통일시키려는 그들의 시도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들로 여기저기 돌아나고 있고 무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LGBTQIA(lesbian여색, gay남색, bisexual양성애, transgender성전환자, queer성정체성을알수없는자, intersex간성, asexual무성애자)의 다양한 성적지향, 젠더 이데올로기가 온 땅을 덮치고 있고 양성 사회를 몰아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에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젠더 주류화는 주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무화과나무 잎새 가운데 특징적인 하나입니다.(마10:15, 유1:7, 벰후2:6)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The time)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때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닫혀진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The season)의 현상을 직시하면서 마지막 때(The

time)를 가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위로

사람들은 고대 제국 시대에 세상 권세가 아닌 종교 권세로 태동한 작은 뿔, 종교 왕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마제국이 붕괴되면서 왕이 되려는 자들은 왕권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 교황으로부터 추인받을 필요가 있었고 교황의 교권 아래 순응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했지만, 영적 권세자인 교황이 통치권을 얻어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군사력이 없이 영적 권세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왕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마지막 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를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는 자신을 경배하도록 온 땅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대환난을 일으킵니다. 그가 일으키는 대환난의 때를 지나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찌어다

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13:8-10)

여기서 9절, 10절과 같이 짐승의 표 666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하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교회의 성도들은 촉각을 세워 왔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의 시기”에 교회의 성도들, 곧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와 일부 “쥬이시 크리스천”(Jewish believers in Jesus)과 같은 유대교 그리스도인임을 배웠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곧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합니다.(계15:3-4)

존 왈부드(John F. Walwood)는 자신의 주석에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¹¹⁾ 그는 짐승의 환난의 때에 “여기에서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이 주목된다. 이 사실도 교회가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휴거 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에 나오는 “성도”라는 낱말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있고 “성도”라는 낱말이 분명하게 환난을 통과하는 ‘남은 자’로서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계14:1,12, 15:3)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언급된 “성도”들 역시 유대교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의 환난에서 나오는 이방인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섯 번째 인의 환난의 때는 짐승의 환난의 때가 아니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짐승의 대환난 전에 주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 되어 들림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지만 간접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근거 구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편, 어떤 학자는 교회의 성도들이 짐승의 표 666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하고 환란의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 특히 짐승의 환난의 시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유대 전통에 기대 살아가던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사관을 가진 사람들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짐승의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설령,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의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세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마28:20)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에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환란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명시적인 구절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깨어 있으면서 주의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고전 10:13)

“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의 지상 재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주의 재림은 휴거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휴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받은 주의 재림은 지상 재림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의 날과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본 주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19:11-16)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들이 대접 심판을 받고 또 세상의 종교를 모아 통합종교를 만들어 어미가 되어 온 세상을 음행의 거짓 교리로 사람들에게 젓 먹이던 음녀의 도성, 여자

를 숭상하는 바벨론 종교가 멸망 받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계19:11-16)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6장 19절에 1차적으로 나오고 그러한 멸망의 상황은 17장과 18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학자들의 견해는 16장의 바벨론 멸망을 로마의 수도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6장 19절에 개략적으로 보여준 바벨론은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이유는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도성이고(계16:19) 그 도성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가 그녀가 땅 위의 사람들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계 18:3) 그 큰 성 바벨론은 지금까지 논해왔던 땅의 왕들을 다스리며 땅 위의 종교들을 통합하고 자신의 새끼로 품으며 거짓 교리로 세상을 미혹하는 마지막 때 온 땅을 다스리는 음녀, 바벨론 종교이고 큰 도성입니다.(계17:18) 바벨론 멸망 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감람산으로 임하실 것을 스가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슥14:4-5)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성도들을 휴거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4:14) 라고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라고 가르쳐 준 주의 재림은 공중 재림으로 보이지만 계시록의 주의 지상 재림의 모습은 심판주로서의 권세와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지상 재림은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밖에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으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를 따르며 주의 입에 날선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분으로서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계19:11-16)

주의 재림 시에 모여든 세상 나라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주님께 대항하여 전

쟁을 벌이다가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나머지 악한 자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겹에 죽어 모든 새들이 그 고기로 배 불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계19:7-8) 곧 성도들이 주를 따를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한이 받은 주의 지상 재림의 환상 가운데 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14)라고 말한 하늘 군대, 곧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휴거로 들림 받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지상 재림 시 바로 휴거 된 성도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고 옛 뱀이요 마귀인 그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한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게 됩니다.(계13:10,14:12,19:4)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천 년이 다 차게 되면 마귀가 다시 무저갱에서 풀려 나와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12)을 미혹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다시 싸움을 붙입니다.(계20:8) 아마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 년 동안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육에 속한 무리일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의 기한이 찬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에 모여듭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성(예루살렘)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하는 무리들을 불살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계20:9-10) 이것이 사단의 패망입니다.

백 보좌 심판

천년왕국 이후 마귀가 무저갱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와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계20:10)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없이 사라져 버립니다.(계20:11,21:1) 그리고 백보좌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은 세상의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계3:20-21/요5:22,마19:28,마25:31, 행17:31,요5:30, 고후5:10, 딤후4:1) 죽은 사람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은 그가 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20:11-15)

보좌에는 두 개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책”13)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책”이 어떠한 책인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특징은 “어린 양의 생명책”(계13:8, 계21:27)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 책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1:29)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받

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분명합니다.(요6:53-58)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얻은 성도들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교적부가 생명책인 양 유혹하는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필자에게 다가와 구원받았는지를 묻고 자신의 교회에 나오면 생명책인 자신들의 교적부에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의 생명책을 대신할 어떠한 책도 없습니다.

1 4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백보좌 심판이 끝나고 나면 지금의 하늘, 곧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천국,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¹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늘 처소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3:13)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¹⁵⁾의 모습을 본 요한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 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 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 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 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더라 "(계21:11-21)

지금은 천국의 모습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희미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비로소 얼굴을 대하듯 천국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떠한 언어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천상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 그 성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으로 빛나고 보석빛이 뿌려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열두 문이 있고 문에는 열두 천사가 있으며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이 있고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으며 그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장광(長廣)과 고(高)가 일만 이천 스다디온 그리고 성곽은 일백사십 사 규빗으로서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서 맑은 유리같이 투명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그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인데 각각의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었으며 그 문을 들어서면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황금길이 놓여 있습니다. 성(城)안에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데 해와 달이 쏘데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 빛으로 밝히시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열두 가지 실과가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열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돌아나 있습니다.

천국에는 저주가 없으며 천국의 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주를 섬기고 얼굴을 볼 것인데 섬기는 이들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고 그들은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것인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계21:1~22:5)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슴 벅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

“ 마라나타 “

김민호 목사/

서울공업고등학교졸업/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성경 번역 협의회 연구위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사랑의 빛 교회 담임목사/ 예수만나기 인터넷 방송국, 시지저스티비 www.seeJESUS.TV , CEO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KOMCA) 회원, 작곡가/

기독교음반기획_외침시리즈 전 대표/

R I A K, 음반산업협회 회원/

/저서: 나우이즈커밍(NOW IS COMING), 한 쪽 성경공부(One Page Bible Study 29) , 당신께 드리는 러브레터, 청년들아,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예찬사),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오(예찬사_Praise). 외

/작품: 제3회, 제9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나의 하나님, 기억하소서)/ 제1회CBS창작복음성가제.(눈물이 없이는 말할 수 없네)

소프라노 장계숙_ 시험닥쳐 왔을 때, 나는 알아요/김원석_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권태열_기억하소서 외

/KPOP: 가수 달로 MBC 배우 김미영의 뮤직비디오_ 행복한 눈물/ 힐링 뮤직_ 낙엽 외



[초대교회의 모습] 끝 도표

1) 니콜라 당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계2:6)

니콜라 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우상숭배의 음행을 일삼던 이단의 무리인 것 같다.(계2:14)

2)말세의 징조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말세의 징조들은 거짓 그리스도 등장, 거짓 선지자의 등장, 불법이 성함, 사랑이 식어짐, 계속되는 난리와 소문, 민족 간의 대적, 도처의 기근과 지진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미움, 환난에 넘겨짐,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는, 해가 어두워짐, 달이 빛을 잃음,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등이다. (마 24:4-14,29/막13:5-13,24-25/눅21:8-17,25-26)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계시록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들은 자기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신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3)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특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취되었다. 리베라가 적그리스도는 먼 종말의 때에 나타나 3년

반 동안 통치하며 성도들에게 대환난을 일으키는 기독교와 무관한 세계 대통령으로 왜곡하여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벌써 적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서 마지막 활동을 펴고 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이르면 그가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강요하며 666 환난을 일으킬 것이다.

4) Willian R. Kimball,,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GREAT TRIBULATION : Future or Fulfilled?/김재영 역, 당신의 대환란 개념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p. 117-131

5) 다니엘의 네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이었으며,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 편을 들고 그 입의 잇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려있는 짐승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는 넷이 있는 짐승이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한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는데 전의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달려 있다. 이 네 마리의 짐승은 요한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달린 한 마리 짐승의 환상으로 계시 된다.

이 환상은 고대 제국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인간 역사의 끝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때까지의 시간을 담고 있다.

6) 144,000명

이 숫자는 이단들이 초기에 즐겨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과거에 여호와 증인들이 자신들의 144,000명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포교하다가 그들의 무리의 수가 144,000명을 넘어서자 지금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숫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의 유일한 수가 아니다. 이 숫자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작은 뿔

우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역사에서 작은 뿔의 성격을 이미 발견하였다.

8) 666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 교황의 공식 명칭 VICARIUS FILII DEI(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는 로마 교황이 쓰는 3층관에 쓰여 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와 같은 알파벳은 자신

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 라틴어에 담겨 있는 알파벳 고유 숫자를 합산하면 666이 나온다. 이 외에도 교황을 지칭하는 문자 값이 666이 되는 낱말들이 있다.

V = 5 / I = 1 / C = 100 / A = no value / R = no value / I = 1 / U, V = 5 / S = no value , 소계 [112]

F = no value / I = 1 / L = 50 / I = 1 / I = 1, 소계 [53]

D = 500 / E = no value / I = 1, 소계 [501]

합계 [112] + [53] + [501] = [666]

9) 메시아닉 주 와 주이시 크리스천

위키백과, Messianic Jew, Messianic Judaism, Jewish Christian/brad TV QnA 메시아닉 유대인과 복음주의 기독교의 차이

10)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그리고 큰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휴거를 동반한다. 그리고 주의 재림은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재림이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중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휴거 역시 지상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과 공중 재림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어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

먼저, 계시록 20장에서 가르쳐주는 문자적인 1000년기에 따라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전천년설이 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찰스 파인버그(charles Feinberg),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Lewis Sperry Chafer), 게이블라인(Gaeblein), 스코필드(C.I. Scofield), 메릴 엉거(Merill F. Unger), 알바 맥클레인(Alva McClain) 등의 많은 학자들이 지지한다. 이 설은 두 개로 나뉘어진다. 벵겔(J.A. Bengel), 랑게(J.P. Lange), 알포드(H. Alford) 등의 입장으로 대환난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달비(S. Darby), 켈리(W. Kelly), 스코필드(C.I. Scofield) 등의 입장으로 환란 전 공중 재림과 휴거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또한 찰스 핫지(Charles Hodge, A.A. Hodge),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 스트롱(A.H. Strong) 등의 입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복음이 승리하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이 세상이 기독교 이상세계로 이루어지는 1000년기 후 대환난이 있으며 환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후천년설이 있다. 또한 어거스틴(Augustine), 루이스 벌코프(Lois Berkhof), 오스왈드 알리스(Oswald Allis) 등의 입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 천년 통치를 부정하고 천년의 통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실제적인 천년기는 없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설이 있다. 본 성경공부는 특정 천년설을 고집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바에 따른 주의 재림과 휴거, 천년왕국 등을 다룬다.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설에 대한 이유가 되는 구절들을 조금씩 엮을 수 있게 해준다. 필자는 전천년설을 지지하며 주의 지상 재림 전 주께서 휴거로 성도들을 데려가 주시길 바라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시록의 비밀을 열어 간다.

11) Bible Knowledge Commentary 30 계시록 13:9-10, 두란노,

12) 곡과 마곡

마곡은 에스겔 38장 2절에 의하면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며 “곡”은 그 나라들의 우두머리이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으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종말론적으로 이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에 속은 왕과 군사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모여들어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되고 사단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어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13) 생명책

국내에 이전에 구원파가 그랬듯이 이 땅에서 생명책을 대신할 어떠한 명부가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자신들에게 오면 그 책에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포교하는 이단들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땅 그 어디에도 “생명책”을 대신할 만한 책은 없다. 자신들의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 하늘과 땅의 사라짐

룻셀이란 사람이 지옥한 지옥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서 스스로 지옥 교리를 제거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만들고 무덤이 지옥이라는 변개된 교리를 만들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19:20 그리고 계20:14에서 '유황불 붙는 못' 또는 '불못'이라고 지옥을 가르쳐 준다. '게헨나'가 있는데 이는 구약의 어린 자녀를 제물로 불로 태워 바치는 몰록 제사의 현장 '히놈의 골짜기'의 헬라어로서 불신자들의 영벌의 장소로 나타난다. 마5:28,23:15/마5:22 등에서 영어 성경은 '지옥', 지옥 불로 번역한다.

룻셀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 후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이 땅을 에덴동산과 같은 낙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땅이 심판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된 것이라고 말한다.(벧후3:3-7)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 마귀가 그 옥에서 풀려나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의 나라들을 미혹하여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벌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은 소멸되고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그 후 이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계20:7-21:2)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시 에덴동산과 같은 영원한 낙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21:1-2)

15)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은 계21:10-22:5절에서 볼 수 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천국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계를 넘어서는 천국 이야기가 성도들 주변에 널려있다. 잘못된 천국관을 갖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성경이 이야기 하는 선을 넘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

나우이즈커밍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장을 해설하지 않는다. 주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우이즈커밍은 한 쪽 성경공부 29장, 다니엘과 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주요 사건 중심으로 종말을 이해한다. 계시록 전체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루지 못한 계시록의 부분은 독자들이 기도하며 나우이즈커밍을 펼쳐놓고 계시록 전체를 차분히 읽어주기를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보여지기를 기도드린다. 나우이즈 커밍은 마지막 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건들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또 계시록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국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030808_r2011007481_201207150000_T29_120406_120831_20121124_202205013_20240118_ver.9.07_r(12)

* 학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